

팬데믹 가운데서도 교회를 불드리고 성도들을 지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힘든 세상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로마서 1장 19절

지구촌 기독교인 점증...무신론자 감소세

라이프웨이, 고든코넬 2022년 세계기독교현황보고서의 7가지 고무적 경향 설명

지역교회에서 봉사하다보면 기독교의 세계성을 잊기 쉽다. 선교사들과의 연결이나 다른 나라로의 선교여행조차도 현대교회의 역량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 그리고 교회가 정체됐거나 축소되고 있다면 세계교회를 비슷한 관점에서 보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든코넬신학교의 세계기독교연구센터의 최신통계(Status of Global Christianity, 2022, in the Context

of 1900-2050)는 2022년 기독교에 대한 더 나은 관점을 제공한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2022년 세계기독교현황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7가지 고무적인 경향이 있다고 제시한다(7 Encouraging Trends of Global Christianity in 2022).



디지털 세상에서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기

BBC, 증가하는 스마트폰 사용 중단과 그 이유 보도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세상에서 돌시 카울링(36)처럼 스마트폰을 버린 사람은 흔치 않다. 지난해 카울링은 정신건강을 위해 스마트폰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난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앞으로 스마트폰 대신 전화통화와 문자만 주고받을 수 있는 오래된 노키아 휴대폰을 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심을 내리게 된 중요한 계기로 각각 2살, 3살인 두 아들과 공원에서 겪었던 일을 소개했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에 있는 20여 명의 부모가 모두 화면 스크롤을 내리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회상했다. "저는 '대체 언제부터 이랬지?'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진짜 삶을 놓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죽음을 앞두고 트위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거나 온라인으로 더 많은 기사를 읽지 못해 아쉬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카울링은 런던 소재 홍보회사인 '헬 예!' (Hell Yeah!)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다. 그는 코로나19 이동제한으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스마트폰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저는 제 삶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시간 동안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봤습니다. 수많은 서비스에 늘 연결돼있다는 것은 늘 방해받고 있다는 뜻이고, 이로 인해 뇌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책을 읽고 잠을 더 자기로 했다 (The people deciding to ditch their smartphones).

(3면으로 계속)

1. 종교적인 신앙이 무종교인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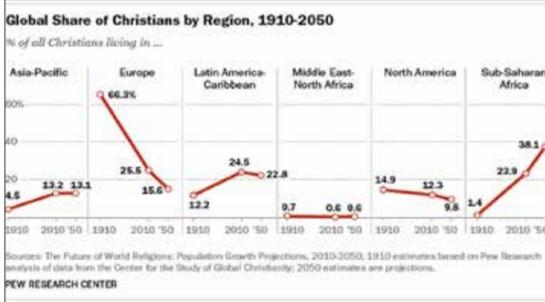
특히 서구에서는 세속주의가 확산되고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모든 종교인의 수는 1.27%의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비종교인의 성장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0.52%로 전체 인구증가율보다 훨씬 낮다. 특히 무신론자 수는 매년 0.18%씩 증가하는 데 그쳐 거의 정체 상태다.

1970년(1억6,500만)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자가 더 적은 수(1억4,700만)이며, 고든코넬 보고서는 그 수가 2050년까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기독교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종교가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17%의 성장률로 2022년 중반까지 거의 25억6천만 명이 기독교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2050년까지 그 숫자는 33억3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카톨릭은 거의 12억6천만 명의 신도를 가진 가장 큰 기독교 그룹으로 남아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두 기독교 그룹은 복음주의(1.8% 성장률)와 은사주의(1.88%)다.

특히 은사주의적 기독교인들의 극적인 세계 성장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1900년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미만이 오순절 또는 은사주의자로 확인됐다. 2050년까지 그 숫자는 10억을 넘을 것이다.

3. 성장은 남반구에서 가장 빠르다.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은 어디일까?

아프리카(2.77% 성장) 및 아시아(1.50%). 2000년에 8억 1,4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유럽

과 북미에 살았고 6억6,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거주했다. 올해 8억 3,800만 명이 북반구에 살고 있고 거의 11억 명의 기독교인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만 살고 있다.

1900년에 유럽에는 다른 세계를 합친 것보다 두 배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았다. 오늘날 아프리카에는 다른 어떤 대륙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 2050년까지 아프리카에는 거의 13억 명의 기독교인이 거주할 것이며 라틴아메리카(6억8,600만)와 아시아(5억 6,000만)는 유럽(4억9,700만)과 북미(2억7,600만)보다 많을 것이다.

4. 기독교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

기독교가 남반구에서 계속

성장함에 따라 기독교도 점점 집중되고 있다. 1900년에는 모든 기독교인의 95%가 대다수 기독교 국가에서 살았다. 2022년에는 그 수치가 53.7%로 떨어졌다. 2022년 세계기독교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기독교인(50.4%)이 비 다수 기독교 국가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5. 기독교인을 알고 있는 비기독교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더 많은 기독교인이 기독교 국가 외부에 거주하면서 더 많은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알고 있다. 1900년에 비기독교인의 5.4%만이 그들이 아는 기독교인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 비율은 오늘날 18.3%로 증가했다. 2050년이 되면 비기독교인 5명 중 1명(20%)이 예수의 추종자를 알게 되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 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1900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54.3%)이 복음화 되지 않았다. 지금은 28%로 떨어졌다.

(3면으로 계속)



3면

시론 최해근 목사



4면

푸른초장 김경도 목사



16면

조인원 에드워즈를 왜 연구하는가? 정부홍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Joa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제5회 캘리포니아 머슴교회 2022 일정: 3월7(월) - 9(수) 장소 & 문의 (순전한 교회, 이진환 목사) 2101 W. Crescent Ave. #K Ahaheim, CA 92801 714-469-2220

초대합니다 교회와 목회의 본질을 함께 고민하며 동행, 동역할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모십니다. 왜 머슴교회 세미나 인가? 강사: 송영선 목사 (만사인 대표, 빌립보교회 원로) 10가지가치 위에 세운 빌립보교회 머슴교회 세미나 신청자격

발행인 칼럼

그대, 과녁인가 통로인가?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한창이다. 판정 시비 등이 일어 다소 얼룩진 모습이지만 오는 20일까지 여러 종목이 계속된다. 그 여러 종목 가운데 봅슬레이라는 종목이 있다. 특별히 제작된 원통 형태의 썰매를 타고 길고 좁고 구불구불한 얼음 통로를 질주하는 경기이다. 둘이나 넷이서 함께 경주를 펼치지만 여성 혼자 경주하는 모노봅도 있다. 혼자든 함께든 그들은 얼음길이 좁다고, 험하다고, 멈추지 않는다. 통로가 끝날 때까지 달리고 또 달린다. 하계 올림픽 가운데 양궁이 있다. 양궁도 개인전이 있고 단체전이 있다. 양궁에는 과녁이 있다. 과녁은 얼마나 이쁠까. 계속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까.

인생에는 이같이 과녁인생이 있고 통로인생이 있다. 과녁인생은 온갖 화살을 맞고 비틀거리는 인생이다. 지나갈 만한 말 한마디도 가슴에 꽂아 놓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과녁처럼 닫힌 인생이요 막힌 사람이다. 보는 이도 힘든데 정작 본인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통로인생은 그렇지 않다. 자기에게 쏟아지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다 지나 보낸다. 자기의 아픈 과거를 듣는 사람에게 "그게 어때서?" 라고 반문하면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그 통로를 통해 자기의 나쁜 것도 흘려보내지만 온갖 좋은 것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낸다. 열린 인생이다. 본인도 신나고 보는 이도 시원하다.

지난 1월에 중국어 회중예배가 시작된 지 7주년 감사예배가 있었다. 예배 가운데 세 명의 중국인 여성이 탄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다. 세 명의 여성은 다름 아닌 항상 밝게 웃는 집사님과 그의 두 딸이었다. 집사님의 남편은 암이 전이되어 힘겨운 상황인데도 곳곳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날 길지 않은 연주 가운데 집사님이 몇 차례 넘어질 듯하였다. 그때마다 집사님은 더 밝은 미소로 일어섰다. 필자는 연주하는 공간이 좁아서 넘어지는 줄로 생각했다. 그리고 며칠 뒤 알게 되었다. 남편을 돌보느라 늘 잠이 부족하고 자녀를 홀로 키우느라 늘 힘겨운 집사님의 다리에 근육무력증 같은 증상이 자주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래도 그는 늘 웃고 있고 늘 감사하고 늘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날도 서 있기도 힘든 데 정성을 다해 딸들과 준비한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여러 고통으로 신음하는 과녁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감사하는 통로인생이다.

예수님은 닫힌 인생에게 "에바다(열려라)!" 하셨다. 닫힌 인생들에게 열린 인생으로 살라고 하신다. 그렇다. 화살 맞은 과녁처럼 비틀거리는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다. 과녁처럼 닫힌 인생이 아니라 통로처럼 열린 인생으로 살고 싶다. 지나가리라. 온갖 화살은 지나가리라. 통로가 되어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싶다. 그 통로는 아픔과 상처를 흘려보내는 것만이 아닌 받은 축복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길 원한다. 잊지 않는 말이 있다. "God blesses you to bless others." 무슨 말인가. 과녁인생이 아니라 통로인생이 되라는 말이 아닌가. "하나님은 다른 자들에게 복을 나누라고 당신에게 복을 주신다." 그대, 과녁인가 통로인가?

기독교적 가치의 세속적 하락 그러나 희망은 있다!

TGC, 영국법원의 D. 맥커레스 판결에서 드러난 세속주의 세상에서의 기독교 영향력 분석

2019년 10월 영국 법원이 현대 문화전쟁의 전형을 보여준 재판에서 데이비드 맥커레스(David Mackereth)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30년 경력의 의사인 맥커레스는 취업 면접에서 "180센티미터 장신의 턱수염 난 남자를 '여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대답했다가 채용을 거부당했다. 그는 자신의 그런 신념이 창세기 1장 27절에 기초한 것임을 알렸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맥커레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근본적인 믿음이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재판에서 패소했다. 판사는 특히 창세기 1장 27절에 대한 이 의사의 믿음은 "인간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간 존엄성"의 뿌리가 되고 있는 이 말씀이 이런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인간 존엄성이 얹어 있는 나뭇가지를 툼질해 버리는 장면을 연상하게 된다.

그렇다면 마침내 기독교의 영향력은 썰물이 돼 사라졌다는 것인가? 이

런 생각은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신앙이 밀려났다고 개탄하는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에게서 오래 전부터 있었다. 19세기 시인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는 그의 시 '도버 해안(Dover Beach)'에서 한때 온 세상의 해안을 휘둘렀던 "신앙의 바다"가 "길고 우울한 소리를 내며 밀려나고" 있으며, 이제는 "기쁨도 사랑도 빛도"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매튜 아놀드가 1851년에, 주일이면 영국 사람의 절반이 교회에 출석했던 시대에 이런 시를 썼다면 그는 과연 오늘날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말했을까? 교회 출석률이 6%인 영국 상황에서 그리고 성경의 기본진리가 공개적으로 정죄당하는 이런 사회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저술과 강연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자인 글렌 스크리브너(Glen Scrivener)는 이러한 세속주의 흐름이 기독교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새로운 조류라고 말해준다(Secularism Proves Christianity's Influence).

신앙의 물결은 썰물이 돼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또 밀물이 돼 다시 차오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 역사에서 "길고 우울한" 소리는 수도 없이 많았고, 높은 파도처럼 비상하게 높이 솟아올랐던 때도 그만큼 됐다. 영원한 썰물은 없다. "신앙의 바다"라는 이 비유는 이렇게 발전시



회학 용어다. 기독교에서는 희생자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역눌린 자에게 존엄과 희망을 주신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희생자들을 존중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대담한 마음을 기르는 것이 미덕이었던

3가지 논쟁점

평등 / 기독교와 분리 급진적인 개인주의 경쟁적 피해자의식 반기독교적 성 개념

킬 수도 있다.

'현재의 수위가 어떠한건 물의 힘은 자명하다.' 썰물 때의 지형도 밀물 때의 해변이 그렇듯이 확실하게 대양 곧 물의 힘에 의해 벗어진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현시대의 이러한 모든 조류 속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의 이러한 역동성을 인식해야 한다.

맥커레스 사건에 어떤 역동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그는 헌신적인 크리스천으로서 트랜스젠더 사상에 반대했다. 하지만 맥커레스의 생각과 그와 상반됐던 생각, 둘 다 각자의 방식대로 기독교적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 특별히 여기서 평등(equality), 긍휼(compassion), 승낙(consent), 3가지 가치가 논쟁의 쟁점인데, 이것들은 일부 트랜스젠더 옹호자들에게 의해 기독교 사(Christian story)에서 분리됐다. 그러므로 그 분리와 재결합을

살펴보자.

평등의 재정의

평등의 개념이 기독교 서사로부터 분리되면 급진적인 개인주의가 될 위험이 있다. 예전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집단적 방식으로 생각했고 개성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는 정반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회를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 개인들의 느슨한 연합체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원자화될 수 있다. 말하자면 나의 생각의 출발점은 나 자신과 나의 정체성이 된다. 다른 문화 속에서라면 나는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외부를 바라보았을 것이지만 우리 문화 안에서는 나 자신을 바라본다.

다른 문화들은 책임을 중시하지만 우리는 권리를 중시한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종류의 사회적 소속(교회출석만이 아니라)이 바닥을 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테이블에 동등하게 앉는 것이 원칙이다. 현대 사회의 목표는 모두가 자신의 사다리를 동등하게 올라가는 것이다.

성경에서 바울은 평등을 이렇게 표현했다. "우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모두가 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갈 3:28).

그런데 21세기의 서구인들은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꾼다. "여러분 모두가 개인이기 때문에입니다." 더 심각하게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모두가 대체가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의 간극은 이제 너무나 벌어졌다.

긍휼의 재정의

긍휼이 기독교 서사에서 분리되면 '경쟁적 피해자의식'(competitive victimhood)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것은 이점을 얻기 위해서 피해자 지위를 경쟁적으로 주장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사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애쓴다.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중재할 수 있는 더 큰 도덕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

페미니스트(또는 종교적 소수자) 쪽과 트랜스젠더 인권운동가 쪽에서 벌어지는 충돌이 핵심을 드러낸다. 여기서 우리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보호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파악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언젠가, 무슨 근거로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별, 신체, 인간의 개별적 특징, 공동체에 대해 훨씬 더 확고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고통" 이야기하고, 그리고 트윗에 대문자로 크게 "지금은 21세기!"라고 선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용 도구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2022년 봄학기 온라인 수업일정
1월10일 - 3월6일
DI8310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기독교 선교역사)
2022년 여름학기 수업일정
5월23일 - 7월17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지구촌 기독교인 점증...

(1면에서 계속)

6. 올해 9천만 권 이상의 성경이 인쇄될 것이다.

기독교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성경 인쇄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2000년 5400만 부, 1900년 500만 부에서 올해 9300만 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인쇄될 것이다. 2025년까지 매년 1억 권의 성경이 인쇄될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거의 18억 권의 성경이 유통되고 있다. 2050년에는 23억 권으로 증가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도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인도에서 거의 9천만 명에 달하는 텔루구어 사용자를 위해 최초의 텔루구어 학습 성경을 개발하고 인쇄하는 것을 포함해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언

어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

7. 믿음을 위해 죽어가는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있다.

2000년 세계 기독교의 지위(Statue of Global Christian)는 10년 동안 160만 명의 기독교인 순교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보고서의 최고기록이다. 2022년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900,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각각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개신 사상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오폴도어스'의 최신 보고서에 기록된 2021년 순교자 증가와 같이 10년 추세는 전년 대비 수치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현재의 숫자나 추세에 관계없이 교회는 전 세계에서 핍박받는 신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한다.

Status of Global Christianity, 2021, in the Context of 1900-2050. Table with columns for Year, Total population, Christian population, etc.

시론: 스포츠 워싱. 지난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제24회 동계올림픽이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91개국에서 2,861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운동을 통해 친선과 국가를 알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선수 224명, 한국은 6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무관중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개막식은 베이징과 허베이성에 온 관객들에 한해 입장이 허용되었으며 선수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 코로나 전염을 막기 위해 외부세계와 단절된 폐쇄공간에서 머물게 됩니다. 선수들 중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21일 동안의 의무격리 기간을 거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1면에서 계속)

영국에서는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통계가 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열중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 평균 4.8시간을 스마트폰에 쓴다.

아직은 적은 수이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있다.

알렉스 더니든은 2년 전 스마트폰을 버렸다. 교육연구자이자 기술전문가인 그는 "우리는 문화적으로 스마트폰에 중독됐다"며 "스마트폰은 인지능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스코틀랜드에 집과 직장이 있는 더니든은 환경적인 요인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낭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서 더 행복해졌고 생산성도 더 높아졌다고 말한다. 심지어 더니든은 오래된 휴대폰이나 유선전화조차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오직 집에 있는 컴퓨터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방식에만 연락을 취한다.

그는 "이 결정으로 내 삶이 더 나아졌다"고 말한다. "에너지와 돈을 소모하는 스마트폰

에 인지적으로 연결돼 있던 제 생각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기술이 우리 삶을 공허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밀업에서 선생님이자 작가로 일하는 린 보이스(53)는 정반대 사례다. 그는 6년 동안의 스마트폰 휴식을 마치고 지난해 8월부터 스마트폰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식당을 출입할 때 보여줘야 하는 QR코드와 백신 여권,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사는 딸과 연락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을 다시 없앨 계획이다. "팬데믹이 끝나고 큰딸 엘라가 귀국한다면 스마트폰 없애는 걸 다시 시도할지도 몰라요. 마치 중독현상 같지 않나요?"

보이스가 2016년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없앤 이유는 딸들이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그는 "딸들은 스마트폰에 빠져 있었다"며 "딸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면 내 스마트폰부터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큰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식당에 갔을 때 딸들은 더 이상 제가 전화 받는 모습을 보지 않게 됐어요."

그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뇌 부담이 많이 줄었다"며 "무언가에 즉각 응답

하거나 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걱정하는 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신이 주신 선물로 여긴다.

영국 통신사 보더폰 대변인은 "이로 서비스와 교육, 사회 서비스 그리고 때로는 가족과 친구와의 대화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디지털 접근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스마트폰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생명선과도 같다"고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온라인을 안전하게 이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술을 최대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치료사이자 '휴대폰 중독워크북'(The Phone Addiction Workbook)의 저자인 힐다 버크는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면 관계형성, 수면의 질, 긴장을 풀고 휴식하는 능력, 집중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통해 조금씩 지속해서 요청을 받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긴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경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잠이 전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이메일과 메시지를 확인해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스마트폰을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평소 지나치게 많이 사

용한다고 느낀다면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

처음에는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한 앱이 있다. 예를 들어, '프리덤'(Freedom)은 일시적으로 앱과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해 이용자의 집중력을 높이는 앱이다. '오프 더 그리드'(Off the Grid)는 일정 시간 동안 이용자의 휴대폰 사용을 막는다.

버크는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측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이 매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허비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변화를 위한 강력한 경종이자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집에 두고 왔을 때 짧은 시간을 쪼개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점차 늘리라고 조언한다. 마지막으로 버크는 만약 시간이 충분하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사진이나 단어를 휴대폰 화면으로 설정하라고 추천한다.

그는 "우리 대부분이 휴대폰을 하루 55번이나 100번까지도 확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방법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소중한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쓰도록 일깨워주는 시각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Directory of churches in California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요즘 뉴욕의 음산한 겨울 날씨를 만날 때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커피를 연거푸 두 잔을 마셔도 별로 기분이 상승하지 않을 때... 음악도, 유일하게 시청하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다큐도 관심이 끌리지 않

을 때에 나는 30년도 넘도록 책장에 꽂혀 있는 책 한권을 꺼내 들곤 합니다. 101가지 감동 스토리만을 모아둔 책입니다. 어느 페이지를 읽어도 혼자 읽고 넘길 수 없는 감동과 감격들이 깊이 묻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 종

일 내리는 겨울비 속에서 도저히 혼자만 알고 덮을 수 없어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대로 함께 읽어봅니다. 댄 클라크라는 독자가 올린 가슴 따뜻해지는 글입니다.

-내가 심대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려고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 가족들이 표를 사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가면 한 발, 한 발 매표소 앞으로 다가서고 있는데 왜 그렇게 더딘지?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마침내 우리 앞에 한 가족만이 남았습니다. 그 가족들은 열두 살 이하의 아이들이 무려 8명이나 되는 데 식구였습니다. 모두들 한결같이 흥분과 기대감으로 넘쳐보였습니다. 아이들의 걸 모습들은 결코 부자 집이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입고 있는 옷들은 고급은 아니었지만 하나같이 정갈했고 행동들도 모두 나름대로 기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부모 뒤에서 흥겹게 기다리면서 이제 곧 펼쳐질 어릿광대 흥내를 내기도 했고 코끼리들이 부릴 묘기에 대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들 있었습니 다. 그 아이들에게는 그날 밤이 평생 잊지 못할 신기로운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아빠와 엄마도 자랑스러운 얼굴로 맨 앞에 서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흐뭇한 미소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들은 손을 잡고 매표소 창구에 고개를 숙여서 입장권을 주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 우리 가족들 아이들 8장 어른 두 장 부탁합니다!" 여직원이 입장료가 얼마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엄마는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놓고 순간적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의 입술도 가늘게 떨려 보였습니다. 아빠로 보이는 남자는 창구에 몸을 숙이고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매표소 직원이 다시 금액

을 말했습니다. 그 남자의 당혹스러운 모습을 볼 때 분명이 돈이 모자라는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아이들에게 오늘 돈이 모자라서 그만 돌아갔다 다음날 다시 와야 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참으로 난감한 상황을 만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기대를 도저히 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순간적으로 굳어 있는 그 때였습니다. 그 난감한 상황을 바로 뒤에서 보고 있던 나의 아빠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20달러 지폐 한 장을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아빠는 몸을 굽혀 다시 집어 들고 앞에 있는 그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헬로! 조금 전에 당신 주머니에서 이것이 떨어졌네요!" 아빠는 20달러 지폐를 그 남자의 손에 건넸습니다. 그

남자는 무슨 상한인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당혹스러운 극한 상황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던 뜻밖의 도움의 손길을 마치 천사가 준 선물을 받듯이 그 남자는 아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지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로 큰 선물입니다." 그 남자의 눈가는 축축히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뒤를 돌아다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어 답례하는 동시에 10명의 온 가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서커스 장입구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비록 나와 아빠는 서커스를 보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나에게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빠의 감동스러운 서커스를 봤습니다. 난 그날 밤 진짜 감동스런 그 서커스가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식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jkym47@gmail.com

푸/른/초/장

김경도 목사
(플라워마운드교회)



지난해에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1위를 차지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에 기독교인과 기독교를 폄하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비상식적인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지영이라는 인물이 등장해 목사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얽힌 파렴치한 이야기를 내뱉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좋지 않게 묘사하는 여러 장면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드라마에서조차 이렇게 좋지 않게 비춰질까?"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았기 때문이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교회다움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교회다운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딤후 3:14-15).

그 당시 교회들은 내적으로 이단들이 교회를 침범하여 혼란스럽게 하는 어려움과 외적으로 핍박의 두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디모데와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우선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올바른 모습을 지키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 상황으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나연구소에 의하면 팬데믹 이후에 30%의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또 20%의 교회들이 문

을 닫게 될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런 도전과 위기에 처해 있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 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세상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1.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딤후 3:15).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 합니다. 또 에베소서 2:19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였습

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거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엡 2:19)(새번역).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하시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가정과 같은 교회입니다. 좋은 가정은 따뜻한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못한 자식이라도 사랑 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아무리 무능력한 부모라도 존경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가정은 심이 있는 곳입니다. 이민생활에 지친 피곤한 우리들이 마음 놓고 쉬며 또 내일을 위해 두 다리 쪽 뻗으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좋은 가정은 격려 받는 곳입니다. 살벌한 생존경쟁에서 낙심되어 돌아올지라도 사랑하는 가족들로 인하여 격려 받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울어줄 수 있으며, 회복되면 같이 끌어안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참 가정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이 쉽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격려를 받고 위로를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어디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서 잃어버린 가정의 모습을 찾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같은 교회공동체 안에서의 경험이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는 바로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그때 교회 안팎으로 풀려오는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는 토론하고 회의할 수 있는 광장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진리의 터였습니다. 여기에 모여 매일같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토론하고 진리를 쫓아가려고 애썼습니다. 바울은 이 배경에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되어 진리이신 예수님 만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이 두 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보여져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교집이 드러나면 안 되고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만이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

스님.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진리의 기둥과 터", 즉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땅속에 수도관을 묻을 때 수도관의 이름새를 아무리 잘 연결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흙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흙으로 물이 새거나 이물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도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도관 안에 있는 고압, 즉 높은 압력 때문입니다. 그 압력으로 인하여 오물이 관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교회는 땅속에 묻혀있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수도관의 이름새에 흙이 생기는 것처럼 교회와 세상 사이에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악영향을 받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강한 압력의 영적 흐름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내적, 외적으로 큰 도전과 어려움에 처한 에베소교회 성도들과 목회자 디모데를 향하여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팬데믹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 다.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되어가는 "뉴노멀 시대"라고 말합니다.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하는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이미 우리 입가에 익숙해졌습니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편안함에 익숙해져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강한 영적 흐름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kdkim99@gmail.com

"올바른 교회"

디모데전서 3장 14-15절

무엇일까요?

2.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딤후 3:15).

사도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두 가지 중요한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건축양식인 원주 문화와 토론하고 회의할 수 있는 광장문화입니다. 그 당시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곳곳에 둥그런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이 천장에 다이지 않는 기둥이라 합니다. 그 기둥에 유명한 사람들의 형상을 올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흉상을 보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그 사람을 닮아가기를 열망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간증이 풍성하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고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주님의 뜻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열심이 공동체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떤 세상의 문화도, 어둠의 세력도 교회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상한 가르침에 귀 기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멈추는 곳에 멈출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을 수 있

기독교적 가치의 세속적...

(2면에서 계속)

승낙의 재정의

성적 승낙이 기독교 서사에

서 분리되면 성을 기독교 가치관으로부터 훨씬 동떨어진 어떤 것으로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 성적 관계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승낙', '헌신' 같은 또 다른 좋은 가치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성

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해줄 더 풍성한 진술로부터 분리시킬 위험이 있다.

성을 마치 여가활동 같은 편안한 선택이라고 순진하게 가정하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힘

의 격차(power differentials)는 항상 존재하며 성은 우리의 신체, 개인적 관계들, 그리고 우리 사회구조와 얽여있다.

개인주의자들인 우리는 성을 지금껏 개인이 사적인 관계를 거래하는 문제로 생각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성적 선택은 모두 결혼, 자녀, 가족, 생물학, 그리고 수많은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승낙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성윤리의 충분

한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3가지 추상적 가치를 특정한 방식으로 섞으면 강력한 혼합물이 나온다. 개인의 힘, 소수의 힘, 그리고 개인선택의 힘(특히 성문제에서)이 바로 그것이다. (10면으로 계속)

자신과 세상을 살리는 통로

죄악된 세상에서 인생이 회복될 길이 무엇인가?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앞에, 회개하며 돌아키는 것이다.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가? 죄 때문이다. 죄가 많아서 멸망한 것이다. 동성애를 포함한 많은 죄악들이 관영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죄인 된 인생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문제는 그 죄를 돌이킬 만한 의인 열 명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이 없으므로 회개치 못하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을 볼 수 없으므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다.

되짚어보면 종말의 시대는 눈을 씻고 찾아도 의인 열사람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악한 시대라는 뜻이다. 이러한 종말을 향해가는 시대 가운데서 내가 살고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사는 길은 무엇이었는가? 회개의 진실함을 가지는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영성을 잃지 않

그러한 회복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에게는 최고의 소원이 되는 것이다. 살기위해서라도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며 죄악 된 인생은 새롭게 회복을 맛보게 된다. 예배가운데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나 예배가 되지 않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못하면 결국은 망할 때까지 그냥 달려가는 것을 본다. 게다가 그것은 자신만 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도 가정과 가문, 공동체까지도 해치는 것을 본다.

특히 가정의 영적리더인 가정이 예배의 실패자가 될 때 그 가족 구성원까지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본다. 예배의 사람 다윗과 달리 예배에 실패하여 회개치 못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죽음의 날에 세 아들이 같은 날 함께 죽을 당했던 것을 본다. 지도자의 타락과

나아간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즉시 회개의 무릎을 꿇게 된다. 그러나 예배가 실패하고 나면 그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한 마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한 내적인 반응이 외양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안색이 변하는 것'이다.

가인의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안색이 변함은 어쩔 이뇨?' 이 말씀은 네가 왜 회개하지 않는다는 질문이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울처럼 가인도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해야 마땅할 순간에 내 예물이 어떠한지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듯 안색이 변해버린 것이다. 이것이 그의 삶을 형체를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규정하는 출발점이 된 것이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책망을 하면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면 회복이 될 것인데, 예배를 실패하고 나니 회개할 심령이 되지 못하고 마침내 실패의 길을 향

배를 드러내다가 자기 사회를 보셨다고 한다. 당신이 사회를 보시는데 사회를 본 다음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날 목사님 설교가 용서에 대한 것이었는데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잠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사람이 그렇게 용서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까? 하고 아주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단 위에서 한마디 하시더라는 것이다. "권사님, 좋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웃어버렸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와 수모를 당했다는 말씀이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 칠십이 넘어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것이다.

어떻게 상담을 했겠는가? 한참을 있다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권사님, 목사님이 좋았다면 졸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더 속이 상했던 것 같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10년째 되는 1.5세 목사입니다.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줌으로 예배를 드렸으나 교인들이 10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은 총성된 교인들이 수십명이 남았는데 목회의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25년은 더 목회할 나이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렌지카운티 Eric 목사

A: 먼저 목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목회와 설교사역은 거칠고 힘든 길이나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늘 용기를 가지시고 인내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목회는 산을 넘는 것과 같아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다보면 결국은 정상이 나오고 아름다운 시야가 눈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 목회의 리더십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로 힘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려우냐하면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 속에는 온갖 죄악 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반역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음란과 폭력과 음모와 방종과 무례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더러운 정욕이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다루는 리더십이 얼마나 어려우냐를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교회, 세상과 삶의 축복 (5)

- 나라와 민족, 가정과 개인

며 주님 앞에서 겸손히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회개와 돌이킴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코로나로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져 나가고 때로는 '아 저 사람의 신앙이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의 밑바닥을 보이는 중직자들 앞에서 그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결국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멀어져 갈수록 회개의 눈물 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자식이 선생님 앞에 잡혀왔을 때 부모가 마치 자기 죄인양 무릎을 꿇을 때 자식도 살고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회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회개를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예배와 회개의 축복

사람은 스스로 장담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죄로부터의 온전한, 회개에 대한 인식하지 않음을 장담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 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릇 행하여 범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범죄했을 지라도 하나님 은혜에 가리움을 받을 길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다.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 가족을 지어 입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 저들의 죄를 가려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고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들으며 회복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실패는 그 사람 자신의 문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음을 본다. 교회의 지도자가 예배에 실패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앞에 몸과 마음을 낮추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놓치게 될 때 교회 공동체도 일순간 분열의 영이 엄습하여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본다.

참된 예배, 겸손한 회개

가인과 아벨을 보라. 가인과 아벨이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을 때라고 이를 설명한다. 그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가? 창세기 4장을 찾아보면,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다'(창 4:4-5)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참된 예배는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과 그 제물, 아벨 자신과 그 제물'을 함께 온전히 드리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다. 가인처럼 마음 없는 믿음의 형식만으로는, 자신을 드러리지 못하고 제물만 가지 고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향하실 수 없으시다는 뜻이다. 결국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예배에 실패한 후에 가인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의 '안색이 변했다'(창4:6)라고 성경은 증거한다. 예배 실패자의 결론은 안색이 변하는 것이다. 무슨 의미인가? 예배에 승리한 사람, 온전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에 순복함으로

해 가속페달을 밟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신뢰

우리는 이성과 사상을 동원해서라도 마음에 작정하고 작정해야 한다. 그것은 "나는 내 평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 것이다"는 다짐이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야단치시면 야단치실 이유가 있음을 믿고,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해야 한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항상 의로우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나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먼저 묻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니 회개하지도 못하고 마침내 형체를 죽인 살인자의 오명을 붙이고 만 것이다. 예배의 실패, 회개의 실패가 너무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살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것이다.

미국에 있다 보면 한국에서 가끔 전화가 온다. 여러 가지 이유의 신앙상담일 경우가 많다. 태평양 건너에 있으니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도 조금은 안 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교회 내에서의 갈등의 문제들, 행정적인 일들,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 상담을 할 때가 있다.

어느 날 은퇴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다. 속이 상해가지고 나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내용인즉, 은퇴권사회에서 헌신예

할 수 있는가?"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전화가 왔다. 전화가 와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집중하라고 영적으로 일깨우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순간에는 좀 더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맞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딱 생각하지 말라고 나를 깨우시려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실패는 대재앙

이 분이 저의 모친이신데, 연세가 들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도 자식이고 어머니가 마흔일곱에 혼자 되셔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잘 알기에 만사에 당연히 어머니 편을 드는 쪽이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 교회와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자식이 아니고 목사로서 어머니의 영혼을 케어(care)할 수밖에 없기에 그 목사님에게서 은혜를 받으셔야 하고 어머니의 예배가 결코 실패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렇게 상담을 했던 것이다.

한국에서 교역자 생활할 때부터 지금까지 액수 변동 없이 작은 용돈을 보내드린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 목사라고 턱없이 작은 돈을 보낸다. 그런데 그것 보내는 목적은 딱 한 가지 뿐이다. 담임목사님과 한 달에 한번 꼭 식사하시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내가 가서 할

용서의 마음, 긍정적 사고, 취미생활 하도록

요즘 대부분의 차들은 에어백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에어백은 사고 시에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리더들에게도 이러한 완충장치가 필요합니다. 1)용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주위에 자기보다 훨씬 탁월한 인재들을 수없이 많이 두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그런 뛰어난 인물들을 옆에 둘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 비결 중에 하나로 용서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보통 머리칼 한 올 흐트러지지 않는 깔끔하고 완벽주의자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더는 사람의 실수를 관대하게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항상 사람을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2)피해의식을 버리고 주도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저자 스티븐 코비는 첫 번째 습관으로 "주도적이 되라(Be proactive)"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패를 책임 전가하는 사람은 인생을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다"라고 되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결과는 승리인 줄 믿고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힘차게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기사가 올 것입니다.

3)건전한 취미생활을 가져라. 사람을 많이 대하는 교수나 목회자들은 감정이 쉽게 고갈되기 때문에 건전한 취미생활을 가지므로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생활 습관으로는 자주 바닷가에 가서 해변을 보고 걷거나 커피를 마시고 넷플릭스 영화를 보거나 적당한 운동으로 땀을 내며 다른 목회자들과 탁구를 치며 교제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1-2번씩은 친구 목회자들과 함께 땀을 흘리는 탁구를 합니다. 운동 후에는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것이 때로는 시간낭비처럼 보이거나 목회적 피곤을 풀어주고 삶의 활력을 줍니다. 저는 이것을 미국 와서 40년간 해왔습니다. 이것은 저의 목회활동에서 강한 체력과 메마른 감성을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감성을 돌보지 않으면 영혼은 차가워지고 메마르게 됩니다.

일은 사실 없기 때문이다. 그때 맞춰 갈지도 잘 모르고 어머니 장례위원장인 제가 아니라 그 담임목사님이기 때문이 시기에 그렇다.

더불어 한국을 방문할 때도 꼭 빠지지 않는 효도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목사님 모시고 식사하는 것이다. 목사님하고 어머니 사이에 막힘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예배가 실패하지 않도록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는 복을 누리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 그렇게 하는가? 어머니의 예배 실패하면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없고, 자식들을 향한 기도가 막히

고 끊어지기 때문이다.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우리가 섬기는 교회공동체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과 자녀들 모두에게 최고의 축복은 예배가 온전히 흥하게 되는 것임을 믿는다. 예배는 인생과 공동체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회개의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마침내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인생과 그의 공동체를 회복과 축복으로 이끄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davidnjeon@yahoo.com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믿음의 열정”

시대가 악화수록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시대가 절망적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더욱 전투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이 꾀는 더욱 기세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때에 악한 영의 공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람은 인생에서 안전한 길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여정은 결코 안전한 길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의 길과 같이 험난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전한 길을 찾으면 진리의 길을 뺏기고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갑니다. 안전한 길을 찾으면 진리의 길을 뺏기고 성공하는 길을 갑니다. 안전한 길을 찾으면 진리를 위한 거룩한 투쟁을 유지하며 영이 나쁜 편안함을 얻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안전한 길을 찾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길을 찾는데 초점합니다.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길을 찾으면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더욱 불태우게 됩니다.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럽고 절망적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살기가 어렵다고 한숨짓지 말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길을 걷고자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무성한 가시덤불 속에 피어 있는 장미처럼 더러운 오물 속에서 순수함을 유지하며 영이 나쁜 풀무 속에서도 환한 빛을 드러우는 햇불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때에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길을 걷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시며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런 보상을 준비하여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십시오.

팬데믹의 혼란하고 절망스런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

는 길을 찾는데 믿음의 열정을 태우지 않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용광로와 같은 시련을 겪고서도 전보다 더욱 약해진 것처럼 팬데믹 이전의 상태보다 더욱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정은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때에 더욱더 뜨거워야 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팬데믹 2년, 목회자가 할 질문 5가지

코로나 팬데믹 발생과 함께 전 세계는 '미증유(未曾有)의 위험'에 맞서 숭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해 왔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사역 현황을 지켜 온 목회자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라이프웨이 부대표인 마크 댄스(Mark Dance) 목사는 3일 '목회자가 자신에게 지금 당장 던져야 할 질문 5가지'를 소개했다.



댄스 목사는 "사역의 어려움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코로나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라며 자신을 향한 첫 번째 질문으로 "나는 여전히 소명에 헌신적인가"를 제시했다. 그는 2021년 라이프웨이 이리서치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강단을 떠나는 목회자는 1%에 불과했다. 목회자의 소명에 대한 신실성이 과소평가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가 위중하지만 역사적으로 목회자가 '중도 포기하는' 자로 여겨졌던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질문은 '사역에 피로를 느끼고 있는가'였다. 댄스 목사는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가 그 끝을 가능하게 어려울 정도로 지속될 때 우울증에 빠지거나 탈진에 이를 수 있다"며 스스로에게 휴식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출애굽기 31장 15절이 말하는 안식과 휴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명령"이라며 안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댄스 목사는 '목회 비전에 혼란을 겪고 있는가' '다른 목회자들로부터 고립돼있는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또한 목회자가 자문해야 할 질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팬데믹 초기에는 목회자들이 예배의 중단과 성도들에게 영적 피난처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을 고민했지만 지금은 군중이나 다른 목회자들 속에 고립되는 것을 걱정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목회자 4명 중 3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같은 어려움을 겪은 목회자로부터 조언을 듣고 싶어 한다"며 목회상황에 대한 공유와 연대를 권면했다.

위로와 격려도 전했다. 댄스 목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죽음의 골짜기를 걷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할 채찍과 지팡이로 목회자들을 무장시키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련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바닥을 드러내게 하며 강화를 시켜주기도 한다"며 "이는 곧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격려했다.

“러시아 침공 땀 집 · 교회 개방”

우크라이나 침례교인들이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피해 지역 신자들을 돕기 위해 집과 교회를 개방할 계획을 세웠다.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에 있는 우크라이나침례신학교(UBTS) 아르솔라프 슬라빅 피츠 총장은 지난달 27일 미국 남침례회 교단지인 '벤티스트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피츠 총장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 북 동부 지역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러시아의 침범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서부 지역 형제, 자매들은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집과 교회를 피해 신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UBTS에 등록된 학생 1300명 중 약 400명은 우크라이나 동부 출신이다.

그는 또 "러시아가 이번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크라이나는 두 개 국가로 나뉘고 서부 지역만

독립된 상태로 남게 될 수 있다"며 "러시아의 통치를 받게 되더라도 침례교회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체너티투데이는 벤티스트프레스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하면서 러시아는 2016년 아보바법에 따라 교회가 담장 밖에서 전도하는 걸 범죄로 규정하는 등 개신교를 박해했다고 전했다. 현재 러시아는 정부 영향을 받는 러시아정교회 이외 모든 교회와 교단을 이단으로 보고 있다.

미국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에서 피츠 총장을 가르친 말콤 야닐 신학연구 교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그는 "두 나라 사이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서 "종교의 자유를 믿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례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국, 올림픽 후 온라인 선교장벽 더 높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4일 본격 개막된 가운데 세계 기독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인권·종교자유 침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데다 올림픽 폐막 이후 온라인 포교 제한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3일 기독교박해감시기구인 차이나에이드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을 포함한 종교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발표한다. 중국의 종교통제 정책인 '종교의 중국화' 조치의 일환이다.

골자는 중국 당국의 승인 없이 종교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승인 대상은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5개 종교(삼자교회(개신교) 천주교 도교 불교 이슬람교)에 국한된다.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에 등록된 교회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

이번 조치는 또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이나 주일학교 교재에 수록된 내용이 공산주의 교리에 부합하는지 검열을 거치도록 했다.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종교 교육을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국 내 가정교회들은 아예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심입조를 내는 행위도 범죄로 간주한다.

한마디로 온라인을 통한 정통 기독교 교리 전파를 차단하는 동시에 온라인 목회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기존 교회의 활로를 틀어막겠다는 의도다. 미래 세대의 기독교인 양성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국제기독교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 미국 대표인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성경의 진리와 공산주의 교리 간의 충돌로 1억명에 달하는 중국 기독교인들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픈도어스에 따르면 정부 박해로 중국 교회의 80%가 분열을 겪으면서 지하교회로 숨어 들어가거나 온라인 교회로 바뀌었다. 중국은 오픈도어스가 발표한 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2022년)에서 사우디아라비아(11위) 이라크(14위) 등에 이어 17위를 기록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순교자의소리(VOM) 토드 네틀런 대변인은 "중국 정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고 성도들이 연합하며, 공산당 관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미시간주 '동성커플에 입양인부' 중단

미시간 주가 "동성커플에 대한 아동임양 서비스 제공 의무를 중단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미시간 주는 1월 25일 연방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라 세인트빈센트카톨릭자선단체(St. Vincent Catholic Charities)가 이성 커플에게만 입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해 차별금지법 위반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미시간가톨릭회의(Michigan Catholic Conference)의 데이비드 말루치니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결정이 "종교의 자유를 위한 승리"라며 축하했다.

말루치니는 "2015년 양심의 권리를 위해 초당적 지지를 받아 체결된 법안이 미시간주의 가장 취약한 아동들에게 계속 혜택을 줄 수 있어 감사하다"며 "미시간의 아동 배치 정책은 영원한 보금자리를 찾는 아동과 가족을 돕는 종교기관의 권리를 확고히 하는 연방 법률적 보호를 누리게 됐다"고 전했다.

'더마트리스 스텔링 미시간 주 보건인적서비스부(MHHS) 사무국장은 성명에서 "세인트빈센트 측이 차별금지법 준수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성소수자 가정들을 포용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스텔링은 "이번 결과는 우리가 바라던 것은 아니지만, 마음과 집을 열고자 하는 LGBTQ+ 공동체의 많은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미시간 주는 2015년 정부와 계약한 입양기관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의 입양 요구를 거절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무신론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2017년 입양기관으로부터 제외된 동성커플을 대신해 세인트빈센트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미시간 주는 정부와 계약한 모든 기관이 주의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해 9월 로버트 윤커 미시간 서부지방법원 판사는 ACLU와 주정부 간의 합의가 "세인트빈센트의 종교적 신념을 겨냥했다"면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6월 미국 대법원은 '풀턴 대 필라델피아 시' (Fulton v. City of Philadelphia)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시 당국은 기독교 입양단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동성 커플 입양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탁 프로그램에서 배제할 수 없다며 종교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주일근무 거부로 해고→소송 제기'

미국 아마존이 최근 빠른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배달원들은 일요일인 주일에도 배달에 나서게 됐다. 크리스체너티투데이(CT)는 4일 아마존이 '프라임' 서비스를 위해 주7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주일에 일하지 않다가 해고된 배달기사 사연을 소개하고 '24시간 경제' 시대에 주일을 지키려는 기독교인들이 반문화적 시선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플로리다의 아마존 배달기사는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실직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일하는 제럴드 그로프씨도 일요일 근무를 다른 요일로 조정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7년과 2018년 총 24일간 일요일 결근을 했다. 그는 2019년 해고됐다. 해고된 두 사람은 회사가 다른 요일에 일할 수 있는 '합리적 편익'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인권법 제7장을 근거로 종교적 차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상반되게 나왔다. 미국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플로리다의 배달기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5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이에 반해 그로프씨가 제기한 소송에선 지난해 지방법원이 회사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는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CT는 그로프씨처럼 예배를 위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주일을 엄수하는 사람들은 생산성을 앞세우며 24시간 경제로 전환한 21세기엔 반문화

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로프씨의 소송 담당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인권법 7장을 통해 '합리적 조정'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퍼스트리버티 히람 사서 법률고문도 "고용주가 종교를 근거로 직원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을 인정하고 그에게 종교적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美 특수부대, 시리아서 IS 수괴 제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미군 특수부대의 대대적 작전으로 이슬람국가(IS) 무장단체 최고 지도자 아부 이브라힘 알하시미 알쿠라이시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미 특수부대가 시리아 북서부에서 성공적으로 대대적 작전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용맹하고 뛰어난 우리 군이 IS를 이끄는 알쿠라이시를 전장에서 제거했다"며 "이날 중로 국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직접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시리아 북서부는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10년째 정부군에 맞서고 있는 반군의 본거지로, 현재는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를 비롯한 극단주의 세력이 반군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대대적작전이 지난 2019년 10월 미군 특수부대가 IS 수괴였던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제거한 이후 최대 규모였다고 전했다. 이번에 처단된 최고 지도자는 그 후계자인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그에게 1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이번 미군 급습 지역은 알바그다디 급습지로부터 20km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알쿠라이시가 미 특수부대의 급습을 받아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폭사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인권관측소'도 시리아 터키 국경 인근 이틀립주의 아드메흐 마을에서 미군의 공격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미군 헬기가 공격지점에 착륙한 후 특수부대가 가옥을 공격했으며, 이번 공격으로 어린이 2명과 여성 1명을 포함해 적어도 1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미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작전에 동원된 헬기 중 1대가 기술적 결함을 일으켰으며, 어쩔 수 없이 지상에서 폭파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격은 IS 잔당이 지난달 21일 시리아 쿠르드자치정부가 관리하는 IS 포로수용소를 공격한 후 이뤄졌다. IS 잔당은 열흘 간 약 3000명의 IS 포로가 수용된 '그하이판' 수용소를 공격했으며 수용소를 관리하는 쿠르드족 120여명이 사망했다.

"감염된 친구 없다면 친구 아예 없는 것"

"지금 주변에 감염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당신은 아예 친구가 없는 것이다"(브랜다 크랍트리).



월스트리트저널(WJS)은 5일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설명하면서 멕시코 감염병 전문가 브랜다 크랍트리의 말을 인용했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크랍트리는 오미크론 변이 무리 속에 깊숙이 침투했다. 이렇게 표현했다.

각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된 지난해 11월 말 이후 영국에서는 6명 중 1명, 덴마크에서는 5명 중 1명, 이스라엘에서는 9명 중 1명이 각각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추산된다고 WJS은 전했다.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찍었던 1월 중순 5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국내에서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6일 0시 기준 확진자가 3만8691명으로 또다시 최다치를 경신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후에 에드워드의 제자들에게 의하여 형성된 신학이 뉴잉글랜드 신학(New England theology)이다. 이 신학이 19세기 초까지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개혁신학을 지배하였다. 뉴잉글랜드 신학은 사무엘 홉킨스(Samuel Hopkins)의 뉴디비니티 신학(New Divinity)과 나다니엘 테일러(Nathaniel Taylor)의 뉴헤이븐 신학(New Haven Theology)이 합쳐져 뉴잉글랜드 신학이 이루어졌다.

뉴디비니티 입장의 학자들은 구원론에 대단한 관심을 가졌다(“아담의 죄와 오늘 우리와 정확하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의미인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제자들은 점진적으로 19세기 미국 환경에 맞게 수정된 칼빈주의 사상적 체계를 제공하였다.

사무엘 홉킨스(Samuel Hopkins, 1721-1803)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윤리적 사상을 일관성 있게 발전시켰고, 조셉 벨라미(Joseph Bellamy, 1719-1790)는 구속론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통적인 신학을 약간 수정하여 인간의 의지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결국 벨라미(Bellamy)의 제자이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아들인 조나단 에드워드 주니어(Jonathan Edwards, Jr., 1745-1801)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미국 독립혁명시대의 법에 대해 영향을 받은 에드워드의 아들인 에드워드 주니어는 “속죄의 통치적인 이론(혹은 도덕통치론, “governmental theory of atonement”)”을 주장했다.

속죄의 통치적인 이론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벌하지 않고 인간을 용서하실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유지하셨다는 것을 주장이다.

벨라미(Joseph Bellamy)와 홉킨스(Samuel Hopkins)는 티모티 드와이트(Timothy Dwight)의 제자들이다. 티모티 드와이트가 예일대학교 학장으로 있으면서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티모티 드와이트(Timothy Dwight)가 외할아버지 조나단 에드워드가 살았을 때는 철저한 칼빈주의였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신학적 입장이, 정통적인 칼빈주의에서 수정 칼빈주의자(Modifier Calvinism)로 변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예일대학의 입장은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의 정통적인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 멀어져 알미니안주의로 나아갔고, 마침내 호레이스 부쉬넬(Horace Bushnell, 1802-1876)이 등장하여 결국 자유주

의로 나아갔다. 부쉬넬은 인간의 전적타락설을 믿지 아니했고, 인간은 교육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인간관과 구원관은 역사적인 칼빈주의로부터 크게 벗어났다.

부쉬넬은 영적 대각성 운동에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성에 대해(특히 죄인이 회개해야 한다는 설교들) 크게 반발하였고 인간은 교육과 양육을 통해 얼마든지 선한 사람으로 발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각성(부흥)운동을 매우 싫었다.

부쉬넬은 대각성 운동으로부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독

민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 어렵지만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지켜 보존해야하고 그리고 후세들에게 물려줘야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

지금까지는 뉴잉글랜드 중심(미국 회중교회)의 초기 청교도들의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는 프린스턴(Princeton)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미국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학을 살펴보겠다.

19세기 프린스턴신학교에서 가르친 신학은 역사에 빛나는 미국의 위대한 칼빈주의 개혁신학의 유산을 남겼다. 이것을 우리는 프린스턴신학(Princeton Theology)이라 칭한

들은 최초의 교수(founding professor)인 아치볼드 알렉산더(Archibald Alexander, 1772 - 1851)와 아치볼드 알렉산더의 제자인 찰스 하지(Charles Hodge, 1797-1878), 그리고 찰스 하지의 제자인 벤저민 B. 워필드(Benjamin Breckinridge Warfield, 1851-1921)이다.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아치볼드 알렉산더(Archibald Alexander, 1772 - 1851)

아치볼드 알렉산더는 프린스턴신학교를 세울 때 다음과 같이 신학교 설립 목적을 분명히 했다.

“프린스턴신학교 설립목적은 높은

에서 뛰어난 자질을 갖추었음을 알고 있었다.

스코틀랜드 이민자의 아들인 아치볼드 알렉산더는 어렸을 때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을 배웠지만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었다. 그는 자기의 친구들이 순회 설교자의 사역(the ministry of itinerant preachers)을 통해 극적인 개종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아치볼드 알렉산더는 친구들과 같은 감정적인 신앙체험을 경험하지 못했다.

어느 날 존 플라벨(John Flavel)의 “거저 주는 복음(on the free offer of the gospel)”이라는 설교를 읽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각성하여 울기위해 숲으로 달려갔다. 복음이 그의 심령 깊은 곳을 움직였고, 그는 숲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한없이 울었다. 아치볼드 알렉산더는 이 경험에 대해 이렇게 썼다.

“나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을 전에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고 항상 내 손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려고 애썼다”(“I had always been striving to bring some price in my hand”). 알렉산더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러나 복음진리를 깨닫고 난후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아치볼드 알렉산더는 복음에 대한 풍성한 감성과 동시에 예리하고 논리적인 이성을 지닌 사람이다.

윌리엄 그레엄(William Graham) 목사의 제자로 사역을 준비한 그는 19세에 목사안수를 받았고 5년 후 Hampden-Sydney College의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1807년 그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장로교회에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필라델피아로 이사했고 곧 장로교 총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때 나이는 35세였고 매우 드문 일이었다.

아치볼드 알렉산더는 영어보다 라틴어로 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읽었다. 그는 버지니아풍의 고상함(Virginian gentility)과 신사적인 성품, 그리고 목회적인 마음(pastoral heart)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다.

아치볼드 알렉산더의 프린스턴신학교 재임기간은 39년이었고 그의 영향은 신학교 전반에 걸쳐 넓고도 깊이 있게 퍼졌다. 그는 프린스턴에서 교수로 사역하면서 몇 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그는 목회적 경건(pastoral piety)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아치볼드 알렉산더 교수가 처음에는 신학교 모든 과목을 가르쳤지만 다른 교수진이 추가되면서 결국 목회신학(pastoral theology)에 집중했다.

(9면으로 계속)



미국 개혁주의신학의 역사 (3)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뉴잉글랜드신학은 J. 에드워드 제자들이 형성해 19C초까지 개혁신학 지배

New Divinity Theology와 New Haven Theology가 합쳐

일의 이상주의와 영국의 낭만주의 학자인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의 영향을 받았다(사무엘 테일러 콜리지는 18-19세기 영국의 시인, 문학가, 철학자이며 영국에서 윌리엄 워즈워스와 함께 낭만주의 운동의 창시자다). 부쉬넬은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로부터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강조한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결국 조나단 에드워드의 제자들에게 의해 출발한 초기의 뉴잉글랜드 신학(New Divinity, New Haven Theology, New England Theology)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주었다.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서 조금이라도 양보하거나 타협하면 나중에는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쳐야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들에게 정통 칼

다(어떤 신학자들은 Old Princeton Theology로 칭하기도 한다). 이 분야에 많은 논문들과 책들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개혁주의 입장에서 가장 뛰어난 책 가운데 하나는 데이빗 카훈(Dr. David B. Calhoun)의 2권으로 된 “Princeton Seminary”(Banner of Truth, 1994)이다.

프린스턴대학교와 프린스턴신학교의 출발은 다르다. 프린스턴대학(Princeton University)은 1746년 “The College of New Jersey” 이름으로 세워졌고, 처음 학장은 조나단 디킨슨(Jonathan Dickinson)이다. 그러나 프린스턴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는 1812년 미국 장로교회 총회(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에서 장로교 목사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세웠고, 첫 교수는 아치볼드 알렉산더(Archibald Alexander, 1772 - 1851)였다.

프린스턴신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

학문과 심령의 열정에서 나오는 경건을 함께 갖춘 목사를 양육시키는데 있다. 학문 없는 열정 혹은 열정 없는 학문 모두 교회에 해를 끼친다”(The purpose of the Seminary is to unite... piety of the heart...with solid learning; believing that religion without learning, or learning without religion, in the ministers of the gospel, must ultimately prove injurious to the church).

알치볼드 알렉산더의 이러한 신학교의 설립 목적이 1811년 장로교 총회에서 채택이 되었고, 이듬해 1812년 개교하였다(The Plan of a Theological Seminary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811).

당시 대부분의 장로교 지도자들은 아치볼드 알렉산더가 프린스턴신학교 교수로서 학문적, 영적, 인간관계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423-9700, Fax: (702)273-996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교회</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물교회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다민족찬양: 매주(목)오후 4:00-7:00</p> <p>Tel: (772)749-9829, www.ecosoc@yahoo.com 6050 W. TOLUHA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태양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종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St, Levittown, PA 19067</p>	<p>벨렐교회</p> <p>담임목사: 백선중</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 어 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6,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ton, MD 21042</p>	<p>보스톤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 어 배: 주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948</p>
<p>새생명안인교회</p> <p>담임목사: 정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E M 배: 오후 7:00(목) 새벽예배: 오전 6:00(화/목/토) 구 역 배: 각 구역별로 한국 화 교: 오전 10:20(주일)</p> <p>Tel: (850)423-9700, Fax: (702)273-9961 5502 Old Behner Rd, Crestview, FL 32536</p>	<p>안디옥교회</p> <p>담임목사: 강준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702)749-9829, www.om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일산사 제자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8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백운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p> <p>Tel: (254)635-1842(H), (254)601-48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p> <p>Tel: (253)536-6675, www.tbcoma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46)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의 생애와 작품들 (2)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4. 복음을 파수하는 실천적, 논쟁적, 구원론적인 신학자

1) 장로교에서 회중교회로의 변화

1644년, 그의 첫 목회지는 에섹스의 포드햄(Fordham) 마을이었다. 그는 얼마 후 에섹스에서 상업도시인 코게샬(coggeshall)로 사역지를 옮기며 그곳 출신의 메리 루크(Mary Rooke)와 결혼했다. 그는 1646년 주일에 출석 교인이 2천 명인 런던의 한 교회에 초빙되었으며 이 시기에 그에게 교회관의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장로교 제도에서 온건한 회중교회주의자로 변환하였다.

2) 반율법주의 논쟁

신학적 노선에 있어서 오웬과

턴(Henry Ireton)도 있었다. 오웬의 이런 설교의 은사는 곧 소문이 퍼져 의회에 초청을 받았고 의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설교자가 되었다.

그는 올리버 크롬웰의 군중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14년간 크롬웰과 함께 영국의 개혁에 동참하게 되었다. 크롬웰은 오웬을 데리고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로 데리고 다니면서 군인들에게 설교를 하게하고 점령지의 종교적 상황을 판단하고 크롬웰의 정치적 상황을 판단하고 크롬웰의 정치를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서 크롬웰에 의해 1651년 의회가 승인한 후에 하원의 투표에 의해서 장로교회 지도자였던 레이놀즈 박사를 제치고 옥스퍼드 '그리스도의 교회'(Christ's church) 교수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오웬의 탁월한 행정력은 눈부

오웬이 옥스퍼드를 떠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당시 대학의 행정자들을 지배하고 있던 대주교 윌리엄 로드(William Laud)가 로마가톨릭에서 내려온 온갖 미신적인 장식과 가톨릭적인 의식을 강요하며 온갖 장식을 고치고 새 동상을 세우자는 고압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대주교 로드(William Laud)는 상하 구조의 국가체제를 따르는 '교회' (High Church)주의자였다. 젊은 오웬은 가장 앞장서서 이러한 정치 목사의 행태에 비판을 가하고 강력히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한 나머지 학교의 설교목사직과 강사직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로부터 청교도들은 '거룩한 특권'과 '고상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동이라거나 마땅히 거부해야할

민스터 신학교백서인데 여기에 참여한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오웬이었다. 1658년 사보이에서 독립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을 주관하고 신학교백서를 따로 작성하고 오웬이 서문을 썼다. 그러나 1660년 올리버 크롬웰의 죽음으로 인해 오웬의 생애는 급작스런 변화를 겪게 되는데 부총장의 자리는 다시 레이놀즈 박사로 교체되었다.

신대륙 미국에서 장로교회가 회중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를 격렬하게 항의하였고 하버드대학교의 총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이를 지적하면서 거부하였다. 오웬의 철저한 비타협적 자세와 다른 독립주의자들의 입장으로 인해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당대 영국에서 교회를 장악하고 있던 인물

장로교인에서 회중교회주의자로 변환, 리차드 백스터와 갈등 웨스트민스터신학교백서 참여자 중 탁월, 사보이선언 서문작성

당대의 청교도로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와 존 호른(John Horne) 같은 탁월한 지도자들과 갈등이 있었다. 코게샬(Coggeshall)에서 회중교회 목회를 하던 1648년, 오웬은 백스터와 논쟁을 하게 되는 데 그의 저술이 상당히 반율법주의 경향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칼빈주의자들 사이에 아주 흔하게 벌어지던 논쟁이 바로 반율법주의 논쟁이다. 이로 인해서 오웬은 "구원은 거룩하신 예수 안에서의 선택이다"(salus electorum, sanguis Jesu)는 글을 썼다.

3) 크롬웰의 군목과 옥스퍼드 부총장

1648년 6월에 페어팩스(Fairfax) 장군이 콜체스터(Colchester)를 포위하였을 때 오웬은 군인들을 위한 설교 초청을 받았다. 그는 많은 장교들과 친분을 맺었는데 그중에는 올리버 크롬웰의 사위인 헨리 아이어

신 업적을 남겨놓았으니 최고의 학자들을 초빙하여 대학을 맡기고 경건과 신앙심의 고취는 물론, 일반 교육수준을 크게 높이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많은 인재들이 큰 감동을 받고 배출되었다.

그는 마침내 크롬웰의 궁중목사가 되었고 1652년 옥스퍼드대학교의 부총장이 되었다. 다음해에는 성직자 임명과정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부총장이라는 직책은 각종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였다. 그는 6년간의 재직 기간에 신학, 설교, 교리문답, 기도를 중심으로 살았다.

오웬은 옥스퍼드 시절 여러 권의 설교집과 강의를, 논쟁서들, 주석, 교리연구서를 남겼는데 그의 저작이 지니는 가치와 중요성은 실로 막대한 것이다. 옥스퍼드의 질서는 약한 편이었지만 오웬은 관대하면서도 확고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행정을 할 수 있었다.

인간의 명령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부해오고 있었다. 화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리들리(Ridley)와 라티머(Latimer)목사를 높이 추앙해왔던 터였다. 1657년에는 전제정치를 실현하려는 크롬웰의 욕망에 반대하여 오웬은 크롬웰과 결별한다.

5. 청교도 운동의 최전선에 우뚝 선 칼빈주의 신학자

1658년 오웬은 런던의 사보이 궁(Savoy Palace)에서의 회중교회의 목회자 모임에 참석하였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에 기초한 고백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마스 굿윈(Thomas Goodwin), 필립 나이, 윌리엄 브리지, 윌리엄 그린 힐, 조셉 카릴과 함께 대표로 임명되었다. 이것이 나중에 사보이 선언(The Savoy Declaration)으로 알려졌다.

청교도 신학의 절정은 웨스트

들은 거의 다 칼빈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장로교회 제도를 바꾸게 하거나 근본적으로 수정하도록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장로교를 국교로 삼겠다고 약속했던 찰스는 오히려 청교도를 핍박하기에 이르면서 모든 상황들이 다르게 전개되었다.

오웬은 약 10년 동안 옥스퍼드 교수와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였다. 1660년 3월 13일에는 감옥에 갇혀있던 존 번연 목사의 석방을 위하여 노력한 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고향 스타드햄튼의 교회로 불려나게 된다. 1662년 '통일령'(The Act of Uniformity)으로 2000여명의 청교도 목사들이 강단에서 추방되었을 때 오웬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후 핍박이 계속되는 동안 핍박에 굴하지 않고 오웬의 저항도 계속되었다.

yoo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성장하는 삶

화초에 물을 준다. 자연의 이치를 본받아 이슬 내리듯 분무기로 아침마다 잎과 줄기 그리고 이들을 자라게 하는 흙 위에 분사하고 있다. 어느 날 살펴보니 새로운 연초록 잎들이 싱그러wie 돌아 있었다. 움트는 새싹들에 반갑게 말을 건네며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란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러나 간혹 줄기에 더는 붙어있을 힘이 없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잎들을 주우며 모든 생명은 생명주기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모든 인간은 운명공동체로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2년여의 팬데믹을 지나며 참으로 귀한 한 분을 떠나보내야 했다. 그를 이 세상에서 더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수정같이 맑고 순수한 영혼을 지닌 자로 인격적인 성숙한 삶의 여운을 남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삶을 바라보며 참 좋은 분이였다는 평가를 하는 경우는 그가 이 세상에서 쌓아올린 재물이나 성과가 아닌 선한 인품으로 인한 삶을 부인할 이는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한다.

인간의 결국에 대해 지난 세대 동안 많은 사상은 저마다의 고찰들을 이야기하지만 삶을 성장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보인다. 정신과 의사이자 20세기 사상가 중 한 사람인 쾨블러 로스는 "생의 수레바퀴"라는 책에서 "삶의 유일한 목적은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과제는 무조건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한다.

사람은 그가 설정한 삶의 목적대로 인생의 내용을 채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돈을 모으는데 모든 삶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업적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이들은 그것에 인생을 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떤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할까?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대로 세상의 흐름 따라 그 조류에 휘둘러 사람들이 열광하는 곳에 시간과 기운을 쏟고 있지는 않은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모으는 데만 급급해하지 말고 성장하는 데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은 어떤가? 가령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대 명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둔다면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조류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 대신 내면의 안정감으로 안眠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화초의 새싹이 연초록에서 짙은 초록 잎이 되고 색이 바래지며 잎이 떨어지듯이 모든 생명체는 성장과 쇠퇴라는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생애 또한 성장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반드시 찾아오는 유한한 삶을 기억하자.

삶을 축적의 관점이 아닌 성장의 관점으로 산다면 이 세상은 더 아름답고 우리네 인생은 더욱 향기 나는 여운을 주는 삶이 되지 않을까?

"내가 알기에 살아생전에 행복하고 선을 행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전3:12).

yanghur@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담임목사: 이자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 오후 09:00 사백기도회: 오전 05:45		뉴욕셋새미교회 담임목사: 이자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 오후 09:00 사백기도회: 오전 05:45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욱 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 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사백기도회: 오전 05:45	뉴욕부르크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02:00 주일 2부예배: 오후 08:45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후 08:45 사백기도회: 오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월-토)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 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사백기도회: 오전 5:30 (월-토)	뉴욕주산양교회 담임목사: 김희복 주일예배: 오후 1:30 다문화예배: 오후 4:00 사백기도회: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구역모임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9:3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사백기도회: 오전 5:40 (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3,5)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찬양예배: 오후 8:30
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석 경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인생특별사역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시 50분 주일학교 오후 3시 20분 청년예배 오후 3시 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어린강아지교회 담임목사: 유승례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은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준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사백기도회: (월-토) 오전 6: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2:00 수요 예 배: 오후 8:00 새벽 기도: 오전 6:0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금), 오전 8:30 (토) 금요공양: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기도회: 목요일마다 (금) 오후 7:3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후 5:45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시 14분 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 (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하와이 행복안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 (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로마노 신학교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기도할 때 기억나는 사람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살아 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 하라고 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너무 절실합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은 늘 불안하고 모자라고 위험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누구 도 자기 인생을 스스로 지키고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 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 니다. 늘 불안하고 위험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 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 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과거적 문제 들을 해결하는 해결사입니다. 기도 는 우리의 현재의 일들을 형통케 하는 신령한 에너지입 니다.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보 장해주는 신적 보호자의 기능 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 도할 때에 전능하신 우리 주님 이 일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러므로 기도가 있는 사람은 안 전하고 행복합니다. 기도가 지 켜주고 기도가 도와주고 기도 가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러기에 우리 주님은 절망적인 삶 의 현실을 감당해야하는 인 간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복음 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 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에게 열릴 것이니”(마7:7). 예 수님의 기도 복음은 이 땅을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 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 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절망적 인생을 극복하고 성공 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부지 기수로 많습니다. 어쩌면 이 글 을 쓰는 저나 읽는 당신도 마 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며 자 원입니다. 이 기도의 선물을 인 생의 자원으로 삼고 살아가면 뜻 하시는 바를 이루게 되 는 축복의 그날을 반드시 맞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

도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입니다.

자기 스스로 기도하여 기도 의 인생 자원이 풍부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스 스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 원이 결핍된 사람은 기도를 가 진 사람의 행복과 축복에 동참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 므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늘 스스로 기도생활에 자기를 투자할 함으로 기도가 있는 행 복한 사람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한결을 더 나아가 자기 스스 로 하는 기도를 넘어 나를 위 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기도 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주 는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사람 의 행복의 크기가 클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웃 성 도들 곧 친구들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여주는 주 의 종들이 있는 교인들은 행복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 결과는 확연

히 달라집니다.

교인들의 행복은 여러 가지 입니다. 말씀으로 교육받는 행 복도 있습니다. 기도로 후원을 받는 행복도 있습니다. 교인이 되면 이런 행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 로 자기를 기억시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자 기를 기억시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억되게 해야 합 니다. 기도가 있는 사람은 행복 한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기억나는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우리 모 두 기도할 때 기억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기도할 때 기억나 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주변의 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각 자를 기억시키는 지혜로운 기 도 전략이 되기 바랍니다. 기 도할 때 기억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살롬.

cyd777@hotmail.com

이임 고훈 목사, 취임 김기석 목사

PGM선교회 제4대 정책이사장 이취임예배

PGM선교회 제 3대 정책이사 장 이임 및 제 4대 정책이사장 취임예배가 2월 2일 노스캐롤라 이나 그린스보로에 위치한 그린 스보로제일장로교회(담임 김기 석 목사)에서 진행됐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여전 히 코로나 영향권 아래 있는 상 황이었지만 PGM 정책이사장과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성도 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취임 예배는 이상현 목사 (PGM 정책

이사, 팔리만인장로교회)의 대 표기도 후 호성기 목사(PGM국 제대표, 필라 안디옥교회)가 ‘나 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리라’(눅9:1-17)라는 제목으로 설교 했다.

호성기牧사는 설교를 통해 그 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선교사의 정의,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명을 감 당해야 되는지를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년간 PGM선교회

제3대 정책이사장으로 신실하 게 사명을 감당한 고훈 목사(시 카고 한미장로교회)에게 감사패 를 전달했다.

고훈 목사는 이임사를 통해 “ 부족한 자가 무거운 이사장직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협력 해 주셨고, 특히 부이사장이었 던 김기석 목사의 도움이 큰 힘 이 됐기에 김기석 목사의 제4대 이사장 취임에 감사와 기대의 마 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훈 목사는 뉴욕 하운 교회회를 사임하고 시카고 한미장 로교회에 부임했고 PGM 정책 이사로 계속 섬기게 된다.

이어 제4대 신임 정책이사장으

로 취임한 김기석 목사는 “전임 고훈 목사의 지난 5년간의 섬김 을 바라보며, 부족한 자가 이사장 직분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 끼지만 이사장직은 혼자 감당하 는 것이 아니라 그린스보로제일 장로교회 성도들과 함께 감당해 선교의 지경을 넓혀나갈 것”이라 고 취임사를 전했다.

이날 PGM선교회 소속 본부 장들과 선교사들이 영성으로 취 임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PGM선교회는 5년전 호성기 국제대표의 비전을 따라 고훈 목사를 중심으로 정책이사회의 리더십에 세대교체가 이뤄졌고,



PGM선교회 정책이사장 이취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제4대 정책이사장으로 취임한 김기석 목사를 통해서 PGM선 교회의 7대 핵심가치와 교회본 질 회복을 위한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와 협력을 부탁했다.

(기사제공: PGM선교회)

미국개혁주의신학의...

(7면에서 계속)

아치볼더 알렉산더는 하나님 의 값없는 은혜를 체험했고 성 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 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역자들을 훈 련시키는 데 일생을 바쳤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다고 확신 했다.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만든 안 된다는 말이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만이 그 직무를 성실 히 수행할 수 있다. 영혼을 살피 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 한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져야한다. 목사는 기도 에 능한 사람이어야 하고 자신의 직분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깊 은 소명감이 있어야한다. 하나 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그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 다” (Archibald Alexander, “On the Advantages of Eminent Pi-

ety to a Minister of the Gospel” lecture, Princeton Seminary, Princeton, New Jersey, 1814).

알렉산더는 교리적 지식의 필 요성을 강조했다지만 언제나 교리 의 목적은 더 큰 사랑과 더욱 큰 거룩함을 이루는데 있었다.

그는 건전한 교리적 요소가 결 여된 감정적 설교를 의심했지만 동시에 그는 감정이 결여된 단순 한 교리적 설교도 의심했다. 알렉 산더는 학생들에게 교리와 감성,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유지하도 록 촉구했다.

또한 그는 회심의 체험의 다양 성을 높이 평가했다.

알렉산더는 10대였을 때에 회 심을 체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 렸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감정적 체험의 모 습이 달랐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 꼈다. 그러나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성경을 연구할수록 그는 사람들 이 회심의 체험의 다양한 방식이 존재함을 알았다.

알렉산더의 유명한 책 “종교

적 체험(Thoughts on Religious Experience)”에서 그는 회심경 험의 통일성과 다양성(unity and diversity)이 있음을 묘사했다.

복음전파를 통해 성령께서 친 히 사람들 심령 속에서 역사하셔 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더욱 크게 나타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은 거 의 감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아 니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 심의 시간을 알 수 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은 회심이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났는지 모를 수 있다.

알렉산더는 하나님께서 특별 한 체험을 통해 회심을 체험하게 도 하시지만 또한 어떤 사람들은

유아기부터 자기도 모르는 가운 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신다고 했다(일반적으로 기독교가정에서 자라나는 유아세대 교인들).

그리고 알렉산더는 젊은 목사 들을 멘토링하는 것을 매우 중요 하게 생각했다.

그의 제자 가운데 가장 위대

년 프린스턴으로 이사했을 때 처 음 만났고, 하지는 지역학교의 심 대 청소년이었다. 찰스 하지는 아 버지 없이 자랐으며 알렉산더는 하지를 자기가 데리고 키우고 양 육했다. 찰스 하지는 알렉산더의 전도여행에 함께 다녔다.

나중에 알렉산더는 찰스 하지 를 프린스턴신학교에 교수로 임 명했다. 찰스 하지가 신학교 교

쉽게 수용했고, 하지는 알렉산더 보다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더 많 이 수용했다. 하지는 유럽에서 공 부하는 것이 그의 미래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알 렉산더는 그것이 그의 영혼에 가 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믿었 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찰스 하지가 19세기의 가장

A. 알렉산더의 프린스턴신학교 설립목적:

“높은 학문과 심령의 열정에서 나오는 경건 갖춘 목사 양육”

한 인물은 찰스 하지(Charles Hodge)이다. 찰스 하지는 스승 알렉산더보다 더욱 큰 인물이 되 었다. 찰스 하지는 스승 아치볼드 알렉산더를 너무나 존경하여 자 기 아들의 이름을 아치볼드로 알 렉산더 하지(Archibald Alexander Hodge)로 지었다. 일반적으로 A.A. 하지로 알려져 있다.

찰스 하지는 알렉산더가 1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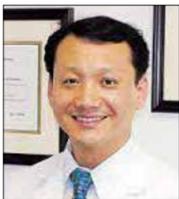
수가 된 후 첫 강의제목이 “성경 해석에서 경건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Piety in the Interpretation of Scripture)이었 는데, 이것은 찰스 하지가 알렉산 더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 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문제에 대 해 완전히 동의하지는 아니했다. 알렉산더는 하지보다 부흥을 더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은 알렉산더가 하지에게 끼친 영 향 때문이다. 알렉산더의 이름은 찰스 하지와 워필드(B.B. Warfield)보다 덜 유명하지만 알렉산 더의 리더십과 그의 신학과 그의 열정은 프린스턴신학교의 제자 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KHL0206@g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초내성 결핵

전염성이 강한 결핵에 걸린 미국인 환자가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두 번이나 건너고 파 리 등 유럽 각지를 여행한 것이 언론에 보도돼 큰 화제가 된 적 이 있다. 이 사건이 미국 내의 검역체계에 문제를 드러낸 것 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이 남성이 가진 결핵균은 일반 결핵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내성

결핵(MDR: multidrug resistance) 중에서도 내성이 더 심한 초내 성 결핵(XDR: extensively drug resistance)이라는 점이다. 초내성 결핵은 일단 감염이 되 면 완치가 힘들고 치료 기간도 일반 결핵보다 훨씬 길고 약으 로 인한 부작용도 많다.

초내성 결핵균이 가장 많이 보고되는 지역은 한국으로

2000년-2004년 동안 보고된 자 료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7,700건의 초내성 결핵균이 발 견되었는데 이중 12,000건이 한 국에서 보고되었다.

결핵균은 1882년 로베르트 코 흐 박사(Dr. Robert Koch)가 처 음 발견했다. 결핵균은 균 자체 가 천천히 번식되는 특성 때문

에 치료도 일반 폐렴에 비해서 길고 여러 가지 항균제를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결핵 균은 매우 전염성이 강하기 때 문에 초기 치료에는 격리가 필 요하다.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철저 한 병원 내 결핵 관리와 완벽한

격리, 투약 방법의 발달(최근에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DOT(direct observed therapy)라 고 하는데 아침마다 환자의 집 에 약을 직접 배달해서 복용하 는 것을 확인한다)로 인해서 결 핵 환자의 수는 해마다 감소하 는 추세지만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서 내성 결핵 환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미 국 내 한인들의 결핵 발생은 맥 시간, 필리핀계, 베트남계에 이 어서 네 번째로 많다. 전 세계적 으로 볼 때는 7-8백만 명의 새로 운 결핵 환자가 진단되고 2-3백 만 명은 이로 인해서 사망한다. 초내성 결핵 질환의 감염도

일반 결핵과 마찬가지로 대기 중의 결핵균에 노출된 경우 감 염이 일어나지만 여러 약물에 내성을 가진 균이기 때문에 현 재 사용하고 있는 결핵약으로 는 듣지 않는다. 내성 결핵이 발 생하는 원인은 초기에 결핵약 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일단 결

핵 진단이 나오면 철저히 격리 해 약물치료로 완치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

결핵의 조기 진단은 환자 자 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공의 안전에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 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 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고 좋아 지지 않거나 전신이 매우 피곤 하고 입맛이 없고 몸무게가 빠 지고 열이나 오한이 나고 밤에 땀이 나거나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거나 기침할 때 피가 나오 거나 결핵 반응 검사에서 양성 이 나타나거나 흉부 엑스선 검 사에서 결핵의 소견이 보일 때

에는 객담 검사를 통해서 결핵 여부를 알아야 한다.

결핵 배양 검사는 걸면 8주가 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결핵이 강하게 의심이 되면 결핵이 진 단되기 전에도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문의:213-383-9388

동부교계 게시판

삼일절기념 장학생 공개 모집

뉴욕한인교회(담임 이용보 목사)가 삼일절기념 장학생을 공개 모집한다. 동 교회는 3.1절 뉴욕 101주년을 맞아 미국내 거주 학생들에게 5명에게 총 5천 달러를 수여한다. 대상은 대학입학자, 재학 중인 자, 대학원 입학자로 제출서류는 입학증명서, 재학증명서, 비전과 3.1절, 추천서 각 1부. 마감은 2월 22일(화)까지 이메일(info.kmci@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212)662-1422

시니어 북클럽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Just Show Up 시니어 북클럽이 3월 2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총 12회 온라인으로 열린다. 수강료는 없으며 교재비는 별도. 대상은 65세 이상 시니어로 강사는 김병용 박사.

▲문의: (201)242-4422, info@familytouchusa.org



50회 뉴욕목사회 첫 임실행위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서류 미인수로 은행구좌도 오픈 못해 50회 뉴욕목사회 첫 임실행위원회, 49회기 연락두절

회계감사 없이 총회를 치른 50회 뉴욕목사회가 첫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49회기 회계장부 및 각종 서류 미인수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또한 총무보고 내용을 총체적으로 조사할 조사위원회 구성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총무 한준희 목사는 총무보고에서 1)49회기 회계장부 및 각종 서류 미인수에 대한 대책에서 △SS-4 Form(EIN) △법인등록서류 △비영리기관 서류 △은행 스테이트먼트 △회계장부 △월 항목별 수입지출 영수증 △서류 직인(도장)을 인수받지 못해 텍스공제가 2021년 5월15일로 취소됐으며 47회기, 48회기, 49회기 은행이 모두 달랐다고 보고했다.

한 총무는 49회기 회장과 회계가 연락두절로 서류를 받지 못해 은행구좌를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하며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또 2)49회기 선관위 운영에 관한 점: △선관위법 △회장 후보 마바울 목사 관련 △선관위원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분회장 후보 허윤준 목사에 소명회와 3)회원명단 재정비: 신규회원가입은 50주년 회년을 맞아 간단하고 신속하게 △가입비 없이 △소속증명서 △독립교단 3인 추천서만 받아 실행위에서 임시회원으로 가입해 임시총회에서 가입 허락.

이날 회계 정관호 목사는 50회기 예산으로 96,684달러를 보고했다. 또 사업계획으로 △2월 27일

목회자초청간담회 △3월 6일 헌법개정위 발족 △4월 17일 부활절연합예배 △24일 50주년 연합집회(강사 조용목 목사) △5월 8일 방송설교 추진 △22일 5개주 체육대회 △29일 개정헌법을 위한 임시총회 △6월 5일 성지순례 예정 △7월 7일 신구 목사님들과 대화 △8월 7일 2차 임실행위 △29일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운동 전개 △9월 18일 선관위 발족 △25일 4개교 남미선교회 탐방(미정) △10월 2일 자유회 △11월 13일 제 51회 정기총회 등을 발표했다.

이날 신입회원으로 유상용, 박희열, 안재현 김경훈 목사가 임시가입 됐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수석협동총무 박희근 목사 인도로 찬양인도 안경순 목사, 대표기도 김천수 목사, 성경봉독 이승진 목사, 설교 윤세웅 목사, 합심기도 김재호 목사(교포사회와 미국 한국을 위해) 김경숙 목사(뉴욕교계와 목사회를 위해), 광고 현영갑 목사, 축도 방지각 목사, 시 낭송 조의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윤세웅 목사는 “참된 선지자”(사6:1-1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에서 아시아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며 “여러분들이 모두 목사로 교회성장 과 교단성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내 공의로 이야기하지 않는가 생각하라. 이 사야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지,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역설했다.

(유원정 기자)

취임 전병삼 장로, 이임 김재관 장로

뉴욕장로성가단 새해감사예배 및 단장 이취임식

뉴욕장로성가단 2022년 새해감사예배 및 단장 이취임식이 2월 2일 오후 1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신입단장에 정병삼 장로가 취임했으며 이임하는 김재관 장로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10대 단장 정병삼 장로는 “저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감당할 수 없을지 염려가 되지만 역대상 25장과 시편 150편 말씀처럼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막중한 사명을 장로성가단 창립목적이 맞춰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신입단원 영입을 위해 단원들의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임하는 김재관 장로는 펜데믹 가운데서 만나게 된 단원들에게 인사하며 “지난 3년을 회고해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기도하며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해주셨다”며 단원들에게 감사하고 퀸즈한인교회와 만나교회에 감사했다.

김재관 장로는 9대 회기 동안 신입단원 13명을 영입해 장로성가단 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며, 지난연말 16년간 연습장소로 사용하던 퀸즈한인교회 등 떠나 교통이 편한 뉴욕만나교회에서 모이도록 했다.

이날 설교는 단목 김바나바 목사(퀸즈한인교회)가 “아버지

여,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요17:20-16)라는 제목으로 했다. 김 목사는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기도로 개개인에게 주어질 러브레터 같은 것”이라며 1)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21절) 2)주님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22절) 3)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24절)는 3가지 간절한 기도를 소개하며 장로성가단이 더 열심히 찬양하며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기를 축원했다.

1부 예배는 정인구 장로 인도로 기도 장세환 장로, 성경봉독 배상규 장로, 특송 소프라노 이애실 선생, 말씀 및 축도 김바나바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이취임식은 박용기 장로 기도 후 이희상 장로의 축가, 전병삼 장로의 경과보고, 감사패 증정, 김재관 장로의 이임사, 정병삼 장로의 취임사 후 주기도문으로 마쳤다.

뉴욕장로성가단은 1996년 고 김창훈 장로를 초대 단장으로 창립돼 2대 박해용 장로가 헌신했으나 한동안 단원이 15명만 남는 등 힘든 시기를 거쳤다. 그동안 16회의 정기연주회와 7개국 해외선교, 카네기홀 등 국내 교회 단체 300여 곳에서 연주했으며 팬데믹으로 지난해 7월부터 모임을 재개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성가단 2022년 새해감사예배 및 단장 이취임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실버선교회 2022년 신년하례 및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 실버. 당신은 나의 길동무...”

뉴욕실버선교회 2022년 신년하례 및 기도회

뉴욕실버선교회(회장 김재열 목사)가 2022년 신년하례 및 기도회를 1월 30일 오후 6시 뉴욕 센트럴교회에서 열었다.

예배는 김경열 목사 인도로 기도 최윤섭 목사, 설교 한재홍 목사, 통성기도, 회개보고 최영식 집사, 사무총장 보고 및 광고 이형근 장로, 신년사 김재열 목사, 축도 노재화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사장 한재홍 목사는 “전능자의 그늘”(사91:1-3)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통성기도는 박현영 목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문삼성 목사가 한인디아스포라와 뉴욕실버선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한편 2월 말에 열리는 뉴욕실버선교회 선교훈련은 팬데믹으로 인해 4월말로 개강을 연기하며, 단기선교는 1월말이나 11월 초로 예정됐다고 공지했다.

회장 김재열 목사는 신년사를 통해 뉴욕실버선교회를 설립하고 2022년 계획과 프로그램, 펀드레이징 계획 등을 논의했다.

▲후원문의: (212)239-4438 enobinc@gmail.com

의 한복판에서/함께 달려온 만남들을 생각해 봅니다./눈 감으면 더 오르는 무수한 얼굴들// 지난날들을 걸어오면서 함께 했던/길동무들을 떠올려 봅니다./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얼굴들/아! 나의 사랑하는 이는 뉴욕 실버들이여!/이영승 목사, 장충현 장로./그리고/지금도 어느 구석에서/쉽 없이 달려가는 나의 뉴욕 실버들이여!/미록 차 한 잔의 아늑한 만남은 없었지만나는 그대들에게 어떤 의미였으며/누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인생의 삶에서 나도 그대들에게/더 좋은 만남으로 남기 위해/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습니다./처음처럼 오늘도 나는 그대들과/삶의 길동무가 되겠습니다./별써 새해를 맞고 첫 달을 보냈지만내 인생에 귀한 만남의 인연들/나의 사랑, 나의 뉴욕 실버 모두를/사랑합니다./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예배예설, 임미누예, 여호와이레/축복이 영원하시길... (기사제공: 뉴욕실버선교회)

오이코스대 동부지역 온라인학위과정 오픈

5월 뉴저지에서 목회학박사과정(D.Min) 시작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오이코스대학교(총장 김종인)가 지난해 1월 온라인 교육허가를 받아 오는 5월 뉴저지에서 목회학박사과정(D.Min)을 시작한다.

2월 7일 뉴저지 새언약교회(담임 김중국 목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종인 총장은 학교소개를 하며 동부에도 신학교들이 많은데 또 하나 추가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학교의 특성 및 학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소개에 따르면 오이코스대학교는 2004년 신학부로부터 출발해 현재는 종합대학교로서 신학과와 음악대, 경영대, 한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미 교육청과 고등교육위원회가 인증하는 학위인증기관인 TRACS(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의 승인을 받았다. 아울러 팬데믹 기간에 진행했던 온라인 강의를 지난해 1월 온라인학위과정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한국과 중국, 유럽 등 지역에서 온라인 학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 총장은 “그러나 온라인만으로는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점을 보완해 이번에 동부지역에 온라인 프로그램을 오픈하고 지역 영성에 맞는 강의 콘텐츠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남미와 중동, 아프리카를 향한 선교의 플랫폼을 만들 비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동부지역 디렉터로 김종국 목사, 교수로 조진모 목사, 행정 남안나 목사와 육민호 목사 등이 조인했다.

김중국 목사는 “개강은 5월에 하게 되며 첫 학기는 장학금지급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며 “남미선교를 오래 했는데, 특히 선교지에서 목회자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LA에도 캠퍼스가 있으며 학교에 관한 정보는 www.oikos.ed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학관련 문의는 김종국 목사(201-694-2855)에게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기독교적 가치의 세속적...

(4면에서 계속)

그리고 이것들이 트랜스젠더 사상의 기본 신념이다.

트랜스젠더 인권운동가들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며 권리를 주장한다: 나는 문화나 생물학적 방식과 무관하게 나의 정체성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소수자로서 나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이념이 아님 명백하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없이도 결코 나올 수 없었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른 한편 데이비드 맥커레스에게는 그 자신의 기독교적 기반이 있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 과학(구체적으로는 성에 대한 생물학적 정의); 그리고 우리의 평등의 최소 근거가 되는(창1:27) 성경의 권위가 그것이다. 그래서 2019년 맥커레스 사건의 법정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적 가치에서 출발했지만 그 세속화된 버전과 전통적 버전 사이의 충돌이다.

우리가 놀랐던 것은 이 판결에서 맥커레스가 졌다는 것이 아니다. 문화전쟁에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그런 판결을 내린 근거였다. 판사는 창세기 1장이

문제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스펜서 클라반(Spencer Klavan)이 신랄하게 비판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씨앗이 꽃과 또는 곡식이 빵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주장은 열매에 의지해 살아가면서도, 그 열매를 낸 나무의 뿌리를 정죄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세속화 추세는 지속가능한 전략이 아니다. 이것이 제시하는 처방은 자유가 아니라 분열의 처방이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내는 한 가지가 있다. 기독교의 피할 수 없는 영향력이 바로 그것이다. 아무리 창세기를 정죄했어도, 여전히 “기독교적” 이유를 가지고 정죄한 것이다.

기독교가 서구문화에 끼친 명백한 영향력이라는 면에서라면 현재의 기독교는 썰물의 시간을 맞았다. 그러나 현재의 문화적 조류가 끼치는 결과보다 “신앙의 바다”가 만들어내는 형세는 훨씬 더 깊고 더 오래 지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탈기독교 시대의 공포와 혼란과 분열주의를 목도하고 있는 이때에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물결이 바뀌기를 바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미주한인노숙인 쉼터 더나눔하우스 후원 담지

미주한인노숙인 쉼터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에 노숙인들을 위한 겨울용품과 후원금이 담지하고 있다.

2월 4일 예수생명교회 김요셉 목사와 2월 1일에는 새삶을 살아가는교회 신요셉 목사가 더나눔하우스를 방문해 각각 500달러를 전달했다. 또 복음뉴스(대표 김동욱 목사)에서 500달러, 뉴욕에일장로교회 100달러, Su Yeon Won 300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1월 25일 뉴욕그레잇네교회(담임 양민석 목사)는 1500달러를 후원했으며 22일에는 민권센터가 더나눔하우스를 방문해 코로나19백신 접종과 개인 위생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

고 손세정제와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전달했다.

박성원 목사는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길거리의 노숙하는 한인들을 만나게 되면 더나눔하우스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목사는 2주전 한 세탁소에서 60대 중반의 여성이 종로상회 앞 벤치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픽업해 City MD에서 코로나검사를 받고 양성임을 확인한 후 안전한 곳에서 격리해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나눔하우스는 자체 쉼터 마련을 위해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

▲문의: (718)683-8884 (기사제공: 더나눔하우스)

이노비 뉴욕, 설날맞이 줌 콘서트

문화복지 비영리단체 이노비 뉴욕이 구정 설날을 맞아 2월 1일 뉴욕 퀸즈 KCS 한인봉사센터의 여르신들과 뉴저지 은혜가든 알로윈 어르신들을 위한 줌(Zoom) 설날맞이 콘서트를 가졌다.

조슬기, 박영경, 유혜림 등 다양한 장르의 훌륭한 여러 이노비 뮤지션들이 참여해 사전 녹화한 주옥같은 한국어 곡들을 음악감독들의 새해인사와 곡 소개를 넣어 새로이 편집해 준비했다.

이노비는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직접 찾아가갈 수 있을 때까지는 쓸쓸하고 적적하

신 시간 보내시는 어르신들께 온라인을 통해 즐거운 시간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콘서트 시리즈는 재외동포재단, 뉴욕총영사관, 조파운데이션의 후원으로 함께한다. 이노비 콘서트는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한편 이노비가 2월 4일 오전 10시 신년 이사회를 줌을 통해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1년 프로그램과 재정을 리뷰하고 2022년 계획과 프로그램, 펀드레이징 계획 등을 논의했다.

▲후원문의: (212)239-4438 enobinc@gmail.com



포틀랜드영락교회 창립 58주년 기념예배에서 박성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예수님께 오라, 가라 세상으로”

포틀랜드영락교회 설립58주년 기념예배

포틀랜드영락교회(담임 박성하 목사) 설립 58주년 기념예배가 2월 6일 주일오전 11시에 열렸다.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설립 58주년 기념예배는 이종기 장로가 기도했으며 엘리웃 중창단과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박성하 목사가 ‘이제 두 번째 부르심에 반응할 때입니다(마28:18-2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성하 목사는 “우리에게 주님의 두 부르심이 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 생활하는 것이다. 부르심은 오라의 부르심과 가라의 부르심이 있다. 오라의 부르심은 예수님께 오라, 가라는 세상으로 혹은 예수님께 가라”라는 것이라며 “오라의 부르심은 나를 위한 부르심이다. 나를 구원하기위

한, 은혜를 주기위한, 영원한 생명주시기위한, 그리고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라며 “부르심에 반응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둘째, 가라의 부르심이 있다. 가라의 부르심은 두 번째 부르심이자 마지막 부르심으로 세상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 가라는 것”이라 말했다. 박 목사는 “창립 5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가라의 부르심”이라며 “오라의 부르심과 가라의 부르심에 균형 있게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박성하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뉴노멀시대의 청지기’ 주제

아이에아연합감리교회 세미나, 강사 김영봉 목사

아이에아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는 1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뉴노멀시대의 청지기’라는 주제로 2022년 신년 청지기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2일 저녁 7시에 열린 5번째 세미나는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성현 목사 사회로 김영봉 목사(와싱턴사목교회)가 ‘뉴노멀시대의 증인(벧전3:8-17)’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영봉 목사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질문은 나는 과연 체험했는가? 증인, 목격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십자가에 은혜로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는가? 나를 계속 옥죄고 있던 죄의 사슬로부터 풀려나는 경험이 있고 내 스스로 노력해서 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만들어내는 경험이 있는가? 영생을 매일 누리고 사는 삶의 기쁨이 있는가의 질문이 있는데 이는 나는 직접적인 증언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것은 더 깊이 체험하자 이다. 내가 들어서 배운 신앙이 아닌 내가 직접 체험한 신앙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어려움 가

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들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살고 있는나고 질문할 것”이라며 “불행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릇된 행동으로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다. 교회가 세상의 말썽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의 소망이 빛을 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아집과 고집으로 우리모습이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뉴노멀시대의 증인은 올드시대의 증인과 다르지 않다. 좋은 증언자가 되기 위해 첫째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둘째 믿는 바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봉 목사는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인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팬데믹에 짓눌려지지 않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돌아와야 한다. 우리가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한사람 한사람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팬데믹 시대 더 빛이 나고 믿음의 능력이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아이에아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뉴노멀시대의 청지기’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김영봉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머슴교회세미나

제5회 머슴교회 세미나 열린다

3월 7-9일 순전교회, 강사 송영선 목사

제5회 캘리포니아 머슴교회 세미나 2022가 오는 3월 7일(월)부터 9일(수)까지 순전교회(담임 이진환 목사)에서 열린다. 머슴교회는 메릴랜드 주 빌립보교회의 비전과 사명, 추구하는 가치들, 그리고 그에 따른 구조에 대한 이야기다.

머슴교회 세미나 강사인 송영선 목사(만사인 대표, 빌립보교회 원로)는 “제자훈련이란 컨셉이 심한도전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제자훈련을 받고도 예수의 제자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제자훈련을 개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모형은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은 무

엇이며 어떻게 그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를 나누게 된다”고 설명했다.

머슴교회 세미나 신청 자격은 △머슴교회 가치관과 원리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리더 △제자훈련을 교회 성장의 아니라 교회의 본질 회복의 방법으로 삼는 리더 △평신도 동역자로 양육과 재생산의 목양자로 세우기 원하는 리더이며 △부교역자나 평신도 리더는 담임목사와 함께 등록할 수 있다.

등록비는 150달러이며 등록 마감은 2월 21일까지, 등록은 mansain.org에서 하며 자세한 것은 mansain20@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기사판

은혜한인교회 신년축복성회

은혜한인교회 신년축복성회가 ‘터닝포인트(Turning point)’라는 주제로 오는 10일(목)일부터 13일(주일)까지 진행된다. 강사는 장순직 목사(원주 드림교회 담임), 목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전 5시30분,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주일 오전 7시30분, 9시20분, 11시30분, 오후 2시에 열린다. ▲문의: (714)446-1000

굿네이버스 사랑나눔 찬양 콘서트

굿네이버스 사랑나눔 찬양콘서트가 16일(수)부터 27일(주일)까지 남가주와 워싱턴 주에서 열린다. 이번 찬양콘서트는 지난 해 7월 한국에서 귀국독창회를 한 바리톤 박동훈 음악목사가 출연한다. 박 목사는 LA와 캔터키, 시애틀, 뉴저지에서 음악목사로 사역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에서 장신대, 총신대, 네팔신학교, ACA에서 강의와 새은교회에서 교육과 음악목사로 섬기고 있다. 일정과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2/16(수) 오후 7시30분 플러튼 시온중앙장로교회(714)383-3007 △2/20(주일) 오후 1시 샌디에고 베다니교회(901)216-4464 △2/23(수) 오후 7시 타코마산 일교회 (253)302-7529 △2/27(주일) 오후 12시 타코마산한목자교회(253)324-7092.

제251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세미나

휴스턴서울교회(담임 이수관 목사) 제251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세미나가 15일(화)부터 20일(주일)까지 개최된다. ▲문의: (713)896-9200

바른 성경관 정립위한 신학포럼

요한계시록 포럼이 주관하는 바른 성경관 정립을 위한 신학포럼이 ‘칼 바르트의 실존신앙 비평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15일(화) 오후 1시30분 하늘꿈교회(743 S Brea Blvd, Brea, CA 92821)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보민 교수(전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현 북음대학교 명예교수). ▲문의: (213)700-1802 최수일 목사

오렌지카운티장로회 회장 이취임식

오렌지카운티장로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이 오는 13일(주일) 오후 4시 남가주 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에서 열린다. 취임하는 신임회장은 김생수 장로, 신임이사장은 정재영 장로다. ▲문의: (714)402-8490



OC전도회연합회 조찬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사진제공 OC전도회 연합회)

2022년 주요 행사계획 발표

OC전도회연합회 조찬기도회 개최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회 연합회(회장 신용 집사) 조찬기도회가 5일 오전 7시30분 에반겔리아 신학대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신용 회장 사회로 열린 조찬기도회는 윤강혁 부회장이 대표 기도했으며 신원규 목사(좋은마을교회 담임/OC교협 이사장)가 ‘유월절의 삶과 회복(요 2:13-2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신원규 목사는 설교에서 “다른 기독교 단체가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고, 잃어버린 유월절을 회복하는 운동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란다”며 도전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신원규 목사가 △한국과 미국을 위한 기도-한국의 경제회복, 코로나 극복, △OC지역사회 및 교회와 목회자, 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코로나로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교회부흥, 선교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연합회 사역과 이사, 자문위원, 회원을 위한 기도-올해 준비하는 사역위해, 이사 자문위원들의 건강, 회원들의 성령충만을 위해 등의 제목으로 중보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본 연합회 초대회장 양문규 목사가 특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신원규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발표한 본 연합회의 2022년 주요 행사계획은 다음과 같다.

△1월22일 이취임감사예배 △4월6일 봄나들이 △5월7일 조찬기도회 및 장학금 시상식 △8월14일 광복절기념예배 △9월10일 한가위 교회연합 성가합창제 △9월24일 미자립교회 지원 및 독거노인 반찬제공 △10월15일 연합회 42주년 기념집회 △12월4일 43차 정기총회 △12월10일 교계연합 송년회. 한편, 연합회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고 정기 조찬기도회 설교와 특별찬양을 컨텐츠로 올린다고 전했다. 지난 회장 이사장 이취임식 내용과 첫 기도회 신원규 목사의 설교도 유튜브 채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에서 볼 수 있다.

연합회 홈페이지: www.ockca.org 유튜브채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이메일:info@ockca.org

(박준호 기자)



HD은혜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에서 취임하는 김상대 목사부부가 인사하고 있다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나라 확장”

HD은혜교회 김상대 담임목사 취임예배

HD은혜교회(7898 Phelan Rd, Phelan)는 지난 12월 30일 본당에서 김상대 담임목사 취임 및 박래성 안수집사 임직식을 가졌다.

김상대 목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교회이길 꿈꾸고 있다”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HD은혜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축적적 예배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며, 신앙계승을 위해 다음세대들을 세우고 지역과 열방을 품는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나라를 확장해가길 바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모두 하나돼 아름다운 동역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가 사도행전 20:23-24를 본문으로 설교했다.

한기홍 목사는 “사람들마다 삶의 색깔이 다양하게 있다. 이

모든 모습은 아름답다. 크리스천의 컬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희생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크리스천들의 컬러는 선교컬러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교회가 해야 할 궁극적 사명은 선교다. HD은혜교회는 선교색깔이 분명히 나타나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담임목사 취임서약, 교인서약, 공포, 취임축하패 증정 등으로 이어졌으며 김상대 목사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 박래성 안수집사 취임식이 있었다.

김상대 담임목사는 서울장로회신학대학(B.Th),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받았다.

(정리: 박준호 기자)

심리상담 15%, 가정폭력 20% 증가

한인가정상담소 2021년 서비스 통계 발표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케서린 염)가 지난 한 해 동안 펼친 서비스 활동 및 성과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각 프로그램별 2021년 서비스 제공 및 성과는 아래와 같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상담 직원 7명, 정신과의 2명, 수련 인턴 4명)은 362명의 심리상담 케이스를 통해 총 4천344 세션

을 제공했다. 2020년 314명 대비 약 15% 증가된 수치다. 총 30회의 심리상담 워크샵 및 세미나를 통해 982명의 한인이 참여했다. 상담 클라이언트의 92%는 한인이며, 78%가 저소득층 혹은 수입이 없는 경우 성인 90%, 아동청소년이 10%다.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직원 8명)은 193명의 클라이언

트에게 가정폭력 통합서비스를 제공했고, 2020년 153명 대비 약 20% 증가된 수치다. 21년 한해 동안 총 170건의 가정폭력 케이스를 하이라인으로 도왔고 58명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재정지원을 했다.

또한 298명의 한인 종교지도자에게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제공, 9명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전환거주지(Transitional housing)를 제공했다. 주 클라이언트 구성은 98%가 한인이며, 88%가 한인이민 1세 여성, 71%가 영어나수사 자유롭지

못하다.

△위탁가정 동지찾기 프로그램(직원 10명, 인턴 5명)은 지난 한해 36명의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정, 2019년 23명 대비 약 50% 증가된 수치다. 예방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229명의 위기 아동 및 양육자가 지원 받았고 79가정이 위탁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이중 12가정이 위탁가정으로 승인받았다. 하이라인을 통해 278건의 도움요청이 있었고, 1천11회의 이벤트 및 아웃리치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동지찾기 프로그램에서 돌보는

틴에이저 3명 모두 지난해 대학진학에 성공했다.

어린이 영양프로그램은 현재 어린이집 148곳에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매월 평균 1,288명의 아동이 하루 3기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229명의 위기 아동 및 양육자가 지원 받았고 79가정이 위탁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이중 12가정이 위탁가정으로 승인받았다. 하이라인을 통해 278건의 도움요청이 있었고, 1천11회의 이벤트 및 아웃리치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동지찾기 프로그램에서 돌보는

▲문의: (213)235-4848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박준호 기자)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총평

2022년 2월 4일 개막하는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인권 개선과 더불어 중국 선교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등 자국 인권 문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불안하게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은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축제인 만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평화를 염원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

오랜 시간 땀과 눈물로 준비한 선수단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치러지는 올림픽인 만큼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과 부상 없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올림픽은 이미 운동선수들의 축제를 넘어 세계인의 축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제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문화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 되어있다. 이런 올림픽의 가치를 실현하기위해 중국 정부는 이번 올림픽을 맞이 하면서 소외된 인권을 되살리는 것을 비롯해서 자국 내 기독교인들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방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제 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바란다.

지난 2007년 중국 정부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자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선교사를 대거 추방시키는 '타이핑(台風) 5호'라는 비밀작전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밖에도 지난 2019년 등 선교사 추방사태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올림픽의 진정한 의미는 인류의 가치와 평화라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르면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한국교회가 해외선교의 전환점이 되었던 만큼 중국 역시 그동안의 폐쇄적인 종교정책을 철회하고 올림픽 정신을 통한 인권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한국교회 역시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을 통한 중국을 향한 선교전략과 이후의 선교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수많은 선교전략을 마련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기독교를 종교법 아래 관리하면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올림픽을 통해 늘 기독교에 대한 견제가 이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중국교회를 위해 기도함과 동시에 중국 선교를 위한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선교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대회 공식슬로건을 '함께하는 미래'로 내놓았다. 올림픽의 진정한 의미가 인류의 가치와 평화라는 원칙을 세운다는 점에서 인권을 돌아보고 평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올림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기사제공: 세기총)

“고레스 왕 같은 대통령을...”

‘변혁한국’ · 국민일보 구국급식기도회 온라인서 진행

“고레스 왕처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단체 변혁한국(상임의장 황성주 목사)과 국민일보 보는 12일 나라와 민족,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구국급식기도회를 유튜브와 줌을 통해 진행한다.

황성주 목사는 3일 “연초 다니엘처럼 21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는데 한국교회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다양한 교단과 교파 소속 교회 2000여개가 기도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황 목사는 “다양한 분에게

기도회를 제안했는데 모두 기대했다는 듯 동참 의사를 밝혔”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지러운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제안이 반가웠던 것 같다”고 했다. 변혁한국은 참가 교회가 최대 3000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 목사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귀환시키는 역할을 한 것처럼 새 대통령이 한국을 세계의 중심, 선교의 중심 국가로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제목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0대 기도제목 중 첫

번제는 “깨끗한 대통령,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고레스 왕 같은 대통령을 세워 달라”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 회복, 성도의 선교적 삶도 기도제목에 포함됐다.

감사로 참여하는 송태근 삼일교회 목사는 ‘한나의 기도’(삼상 1:15)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송 목사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침체하고 혼탁한 대선 상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에 힘을 보태려 한다”며 “마음이 슬프다고 고백했던 한나처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한기재 중앙성결교회 목사도 “한국교회가 다니엘의 세 친구나 노예해방 운동가 윌버 포스가 몸담았던 기독교 공동체 ‘클래팸(Clapham)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바람을 전할 것”이라고 했다.

기도회에는 이외에도 박종순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필도 부산성서화은동본부 설립이사장, 유관재 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등 원로를 비롯해 오일영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 박호종(덕크로스처치) 조희완(마산신장교회) 목사 등 20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기도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8시간 동안 진행된다. 유튜브(미션라이프 구국청년기도회 홀리튜브)와 줌(zoom)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변혁한국은 지난해 4월 고난 주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청년기도회’를 열어 호응을 받았다.

“교회 문 다시 여는 지름길은 공공성 회복”

‘제3회 교회와 공동선 콘퍼런스’ 에서 의견 개진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후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교회로 성숙할 수 있을지.

도시공동체연구소(연구소·이사장 김영신)가 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에서 연 ‘제3회 교회와 공동선 콘퍼런스’에서는 공공성 회복이 코로나로 닫힌 교회의 문을 건강하게 다시 여는 절경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교계에서 큰 관심을 끄는 ‘교회 공공성’은 교인만의 교회에서 모두를 위한 교회가 된 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 거듭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가 아픈 이유와 그 근원을 찾아 품고 모든 장벽을 철폐하는 자비의 정치학이 대안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제와 가림을 통해 상대적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건 불가능하다”며 “코로나는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바로 이웃을 향한 자비를 통해 회복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권했다.

박영호 포항제일교회 목사는 “1세기 시각에서 종교는 공적인 영역에 있었지만 적지 않은 경우 사적 네트워크에 함몰되는 문제가 생겼다”며 “바울 사도는 이를 경고하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주의 것’을 강조하며 교회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수 이야기와 종말론, 십자가라는 신학의 중심을 붙들어야 하고 동시에 교회 내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건강한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라”고 조언했다.

김요한 새물결플러스 대표도 “교회의 사사화와 사유화

등이 공공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나만 천국 가겠다는 개인적 교회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하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의 리더십과 규모, 선교적 방향성을 재고해야만 지성인과 젊은이가 교회로 돌아온다”면서 “혁명적 조치 없이는 10년 뒤 교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동반연 “차별금지법과 유사...입법 반대”

‘차별행위 시정 없을 땐 과태료’ 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차별행위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는 기관 등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입법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과 같은 법을 제정해 동성애 문화를 반대할 표현·종교의 자유를 막으려는 시도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9일까지 국회에 입법 예고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위법한 차별행위 등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구제조치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선에선 부동산 등 경제 이슈 압도

기사연 지난달 개신교인 1000명 조사

기독교인은 오는 3월 대선 이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선적 과제로 부동산 안정을 꼽았다. 이어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검찰개혁 순이었다. 한국사회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이미지에 대해선 ‘부정적’이란 응답이 72.5%였다. ‘긍정적’ 비율은 10.5%로 부정적 답변의 7분의 1에 그쳤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원장 김영주 목사)은 개신교인 인식조사 연구를 거쳐 ‘제20대 대선정국과

라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인구 기준으로 비례 할당 추 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라

적 고립감 속에서 치루는 부동산 대선’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이미지에 대한 물음에 개신교인의 72.5%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고, 사회가 교회를 그렇게 본다는 의미이지만, 부정적 답변이 긍정적 답변의 7배가 넘었다는 측면에서 한국교회 갱신 노력이 필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연은 “(사회에서 보는) 교회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란

기독교인 72.5% “사회서 보는 교회 이미지 부정적” 긍정 답변은 7분의 1 수준

한국교회’ 자료를 발표했고 5일 밝혔다. 기사연이 지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패널 활용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수행한 통계를 근거로 했다고 전했다. 표본은 인구 센서스 결과에 따

고 밝혔다. 대선 이후 정부의 우선적 해결 과제를 묻는 질문에 1순 위 응답을 기준으로 22.6%는 부동산 안정, 16.7%는 경제 성장, 11.4%는 일자리 창출, 9.9% 양극화 해소, 6.8%는 검찰개혁, 5.1%는 사회통합을 꼽았다. 기사연은 “높은 경제

비율은 40대 이하에서 특히 더 높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수록 ‘부정적’ 비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기사연은 오는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에홀에서 전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피종진 목사 2022년도 **국내 외 성회일정**



- 단국대학교 총동맹회 자문위원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맹회 상임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 영어 연구원 동문회 대표교문
- 서울대학교(ABKI)제12기 원우회교문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M.Min)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월) 저녁 창원은혜교회 (피은혜 목사) 010-4586-8642구정 축복성회
2(수) 저녁 시마산기도원 (원장 조준상 목사)
5(토) 오후 서울글로벌세계선교센터 (이사장 강숙자 권사)
010-6618-1566 6(주)
010-8222-1992
7(월) 오전 북인천중앙교회(장사무열목사) 010-7733-9106
주최 with협의회(대표총재 장사무열목사)
7(월) 오후 서울대학교 최고위과정 (ABKI) Graduation & Ceremony
8(화) 오전 인천소망교회 (황기래 목사) 010-4423-2838
8(화)~11(금) 진주기도원 (원장 김진홍 목사) 010-5228-0631
11(금) 오전 한국기독교부흥사연합 (대표총재 고종진 목사)
13(주) 저녁 서울열린교회 (김희준 목사) 010-8633-0190
14(월)~17(목) 전국 목회자 제주도 컨퍼런스
주최: 한국교회예배회복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기성 목사 010-5270-7105
장소 제주도 상그릴라호텔 강당
서울 만나교회 (윤재봉 목사)
010-7567-8291 (안내전화 1533-4110)
주최: 월드기독교총연합회 (설립대표 정진희 목사) 대표총재 (정도술 목사)
21(월) 오전 광명예수생명교회 (주종순 목사) 멘토링 방송 제작 세미나
010-9424-8475 ∴ 사모 조하라 목사 010-9424-8475
24(목) 오후 속초은목교회 (문종복 목사) 010-3323-4080
28(월) 오후 안성수양관(원장성정경목사)010-2743-5302
주최 with협의회(대표총재 장사무열목사) 부흥사연수MT
28(월)~3.2(수) 세종 생수는교회 (최병남 목사) 010-5401-2476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보다 신속하고 빠르니!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특수선교지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NYU School of Medicine 문자: 929-410-4475
180 Madison Avenue # 3-23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New York, NY 10016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겸손의 왕이신 주 예수(눅19:28-36)찬347장

첫째, 그는 겸손의 왕이십니다(35). 백마 타실 분이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은 자신의 사역 시작과 마지막이 겸손으로 일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라 예언대로(슌9:9) 그 왕의 겸손은 그의 모든 사역의 기본이며 방법이며 목적이심을 실물로 가르쳐주셨습니다. 용맹과 위상을 강조하는 로마의 인본주의와 전혀 다른 어린양의 원리를 보이심은 우리가 가야할 길을 가리키십니다.

둘째, 그는 주권자이십니다(31-34). “주께서 쓰시겠다”는 간단한 이 말은 하나님백성생활의 주되심을 강조하십니다. 주권자의 능력은 이런 겸손에서 흘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애타게 자립합니다(사1:1). 셋째, 그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25). 산상보훈에 심령의 가난상태를 첫째 복으로 명시하심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갑시다(사57:15).

화 찬송할 이유(눅20:37-38)찬43장

우리는 겸손한 그 왕을 왜 찬송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능한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37). 왕의 능력을 바로 알 때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성경계시를 관찰하고 묵상함으로 그 능력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둘째, 그들은 하늘의 평화를 찬송했습니다(38). 왕이 오심은 구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원수이던 우

리가 그의 구속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셋째,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 충만했습니다(38). 하나님의 보좌에만 있는 영광이 그 왕의 구속으로 밝히 나타났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구속에 탄생하신 천군천사의 찬송과 같으나(눅2:14) 여기는 더 발전적인 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성도의 찬양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들어 갑시다.

수 침묵할 수 없는 구속(눅20:39-40)찬139장

백성들은 왜 감격스러운 찬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첫째 구속의 완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억만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처리됨이 구속입니다. 이 용서를 아는 자는 감사와 찬양과 헌신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구속받은 자가 감격을 회복할 때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속을 이루시고 자기 백

성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은 그 구속을 실재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구속의 책인 성경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구속의 풍성함을 누리야합니다. 셋째,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신의 죄인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빛 아래 진정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이 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해를 그 감격으로 넘치게 합시다.

목 그 왕의 눈물(눅20:41-44)찬82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알지 못하고 영접치 않은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 왕은 우셨습니다. 첫째, 구속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41-42). 이미 모든 특권이 주어졌으나 누릴 줄 모르는 어두움은 가장 큰 저주입니다. 구속주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한 자들은 최대의 비극을 맞습니다. 둘째, 버림받은 자의 비참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43-44). 자식을 땅에 매어치고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는 전쟁의 폐허가 따르는 그 비참함을 미리 보시고 우셨습니다. 셋째,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44). 보살핌을 받는 기회에 돌아오는 것을 거절할 그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잃은 자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그런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갑시다.

금 기도의 집(눅19:45-48)찬480장

구속의 완성인 참 성전 하늘에 오르시기 전 주님은 마지막을 성전에 들어가 성전의 실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첫째,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 보좌 상징으로 옛 예언과 같은 상징입니다. 그 성전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성전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둘째, 강도 소굴이 된 것은 성전의 제일 역할인 하나님과의 교제에 실패했기 때문

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면 자연히 탐욕의 소굴이 돼 온갖 욕심과 외식과 광패가 채워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셋째, 경건을 이용하기 잘하는 외식과 싸워야합니다. 외식을 이기는 길은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인 성경에 착념하는 길 뿐입니다. 그 때 진리의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외식을 철저히 경계하는 참 신자로서 살아갑시다.

토 참된 권위(눅20:1-8)찬173장

예수님 권위에 도전하는 종교지도자들의 질문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하나님됨을 들어냈습니다. 첫째, 예수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며 그 자신이 하나님입니다(1). 그가 전한 복음만이 죽은 자를 살리며 어두움을 빛으로 바꿉니다. 둘째, 세례요한의 권위 역시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2-6).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 길잡이 역할을 한 그의 영적권위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쇠함

으로 예수의 흥함을 증거한 선지자였습니다. 셋째, 종교지도자들은 모두 모세 율법을 근거한 권위를 주장했으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참 권위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참 권위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영권을 행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기고문

복음의 메아리 세상을 향해 널리 울려 퍼지길



최수남 목사
(LA 다민족선교)

2022년 새해가 이미 2월 중순에 접어들었다. 올해는 코로나의 횡포가 좀 나아지나 했더니 작년 말부터 '오미크론'이란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려서 이곳 LA지역도 거리두기와 백신접종을 강요하며 식당과 여러 곳의 출입을 제한하며 각 급 학교의 개학을 미루고 교회도 모임을 줄이고 있다.

마지막 때에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하는데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변이로 바뀌면서 거리두기로 인해 가까이 다가가기도 어렵게 되고 입에는 마스크를 씌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한다.

무슬림 최대국가 인도네시아에서의 선교와 다시 십년 여의 한국(창원)에서 '외국인선교'를 마무리하고 LA의 한인 타운에 위치한 안락한 시니어아파트에 우리부부는 살면서 이전 좀 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선교의 장을 주셔서 부덕하셨습니다.

작년 6월에 아름다운 장미가 핀 공원이 'USC(남가주대학교)' 옆에 있어서 꽃구경 갔다가 그 학교를 다시 방문했고 그 교정을 거닐 때에 다가온 주의 말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행18:10b)가 내 뇌리에 꽂혔는데. 이곳은 명문 사립대학교로서 외국유학생들이 많다고 이미 들었지만 이제 70살이 다 되어가는 나에게 어찌 이런 사명이? 나는 남편과 이 일을 나누었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였다.

그 옛날 갈렘이 '헤브론'을 위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간구할 때가 그의 나이 팔십 오세가 아니던가? 당시에도 젊은 장수들이 있었겠지만 모두가 헤브론 족속이 두려워 엄두를 내지 못했고 갈렘, 그가 나선 것이다. 이 갈렘의 용기를 통하여 가나안 땅의 핵심인 헤브론을 중심으로 경건한 자손이 번성되었고 때가 되매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이와 세사적인 조건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여 준 성경적 사실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

또한 이 학교는 140여 년 전에 교회들이 모금하여 세운 기독교학교였음을 학교의 정원에 세워진 간판을 통하여 역사를 알 수 있었고 교회 건물도 교내에 세워져 있기는 하나,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낡은 전시물로서 쓸쓸히 서있을 뿐이다.

그런데 가까이 우뚝 서있는 이슬람사원인 모스크와 카톨릭성당은 든든히 서있어서 나는 마음이 아파왔다.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작년 7월부터 매주 서너 번은 그 학교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아파트에서 자동차(버스)로 10분 정도의 다니기 좋은 거리이다.

그동안 다니며 전도한 유학생들은 주로 아시아의 중국, 대만과 베트남 등 불교권과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중동의 이슬람권, 그리고 인도

의 힌두교 학생들을 주로 접하며 생명의 주 예수를 소개했다.

우리부부의 외모가 아시아인이니 친근감이 드는지? 그들과 만나기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복음을 제시하니 무슬림(이슬람교인)들과 유대교를 신봉하는 학생들은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기도 했다. 그 학생들 중에는 복음을 잘 듣고 마음에 두는 듯이 보이기도 했으나 나중에는 일체의 연락을 거절하였고 카톨릭 신자들조차도 보이지 않는 경계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복음전도는 영적싸움이기엔 적지 않은 기도의 무장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지난 선교 3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영적 전쟁터인 이곳, USC의 복음전도에 힘쓰고 있지만 이들은 세상지식에 명석하고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다. 특히 유학생들은 자기나라로 돌아가면 그 나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인재들이 대부분 이기에 실재선교의 중심무대가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전도한 몇 명의 학생을 초대하여 간단한 식사와 교제를 가졌었다. 기도 가운데 성탄절기에 다시 모임을 갖기로 하고 비록 시기는 방학 중이지만 유학생들은 기숙사에 남아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였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을 초대하고 저녁식사와 선물도 준비했으나 부유한 집의 자녀들이 그들은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화려한 뉴욕과 다른 휴양지로 여행을 떠난 것이었다.

예정대로 그 날(지난 12월 셋째 주일) 초저녁에 기숙사의 교정에서 기타로 봉사한 분과 우리는 함께 캐롤송을 부르며 아기예수의 나심을 함께 찬양하였다. 초대받은 학생 몇 명과 지나가던 학생들과 함께 찬양이 무르익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느 분이 카메라로 열심히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었고 찬양이 끝난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디서 오신 분이냐?"고 물어보았다.

그 두 사람은 놀랍게도, 미국 TV방송, Channel 2(CBSN, KCAL 9)의 취재기자들이었다. 그 날 그 학교에서 농구경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경기를 녹화하려다가 'pandemic'으로 취소가 되어서 돌아가려는데 저 쪽에서 들려오는 성탄 캐롤송에 이끌려서 이곳으로 왔단다. 그들은 '오늘 저녁 뉴스시간에 이 녹화한 장면이 나갈 것'이라며 명함을 1장 건네고 떠났다.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뉴스의 헤드라인이 잠시 방영된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과 함께 '팬데믹의 우려 속에 울려 퍼진 메아리!'로 제목을 붙여 방송됐단다. 할렐루야! 적은 무리가 찬양했지만 주께서는 방송에 실어서 캘리포니아(LA)전지역에 퍼뜨리신 것이다.

올해도 코로나는 우리가 듣지 못하던 이름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주의 나라는 계속 침노를 당할 것이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특히 전도하는 일은 더 어려운 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매 주일 아침에 그 곳에서 적은 무리와 말씀을 나누며 생명의 복음을 정기적으로 나누고 있다. 생명의 메아리가 혼탁한 세상을 향해 널리 울려 퍼져나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서 일하고 계심을 통해 날마다 감사하고 있다.

deborah0614@hanmail.net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 일기

황은숙 선교사 (엘살바도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소박하지만 행복한 아침입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예수님께 인사하고, 침대에 누워 팔다리 운동을 하고,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해서 깊이 들

로 시작하지만 생각해보니 훗날 인간비 판로 수익 관리 등으로 복잡하고, 실수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개별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병아리와 닭장을 만들어주기로 했

어나길 바라며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잘 관리를 하여 큰 양계장으로 성장시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길 소망하며 또 다른 가정에 후원의



엘살바도르는 일년중 제일 좋은 계절입니다. 건기라서 모기 파리 각종 벌레들이 힘을 못 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 더 힘쓰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60살에 조기은퇴하고 엘살바도르 산골짜기에서 선교하는 우리 응원하고 존경해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이나 주변 이웃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 두렵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아프고 외롭고 힘들 때 나를 떠올리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선교지가 그렇듯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저희는 복음과 교육, 구제,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번 1월부터 어려운 가정에 자립경제 사역 중 하나로 양계사업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뉴욕 웨이스미션에서 병아리 100마리와 작은 닭장을 지원하여 짓고 있는 중입니다. 큰 공동 양계장? 처음엔 좋은 마음으

습니다. 시범삼아 작년 9월에 사준 100마리 병아리가 벌써 자라서 알을 낳고, 식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싱글병글 너무 기뻐합니다. 아이들까지 병아리와 친구삼아 노는 모습 또한 예쁩니다. 다 잡아먹고 팔지 말고 꼭 씨앗 병아리 100마리씩 남겨드리며 사업을 키워가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닭장을 다 지었다고 하여 남편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늘 가난과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얼굴이 어둡던 불량카의 얼굴에 희망으로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내 손을 잡고 불량카가 손가락으로 수탉을 가리키며 "그레이스, 저 녀석은 카사노바야." "헉-???" ㅎㅎㅎ 수탉이 노는 꼴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불량카는 병아리 닭들을 돌보며 잘 자라나 관찰을 합니다. 일부 일처제하곤 상관이 없는 수탉은 아주 거만하게 여러 암탉들을 데리고 호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낳은 유정란을 품고 있는 암탉, 4-6주정도 지나면 병아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난을 벗

손길이 있기를 기다립니다. 빈곤과 무지로 피폐해진 마을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희망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 생명과 사랑의 순환에 함께하는 것이 생명을 심고, 사랑을 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농브레데테수 시 커뮤니티 사이트에 우리 사진과 스토리가 소개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교육과 문화, 무료급식을 통해 건강을 돌보며 선교하는 선교사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감사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울컥했습니다.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좋다고 여겼는데 함께 하는 우리 엘살바도르 사람들도 하나님 일을 하는 선한 사람으로 기억해주시 위로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네요. 할렐루야!

hyj0691@gmail.com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47. 가정문제의 해결방안

가정선교칼럼의 연재를 시작하면서 공지한 대로, 제1장 가정(칼럼1-30)이 연재되었고, 제2장 가정선교(칼럼31-45)가 연재되었으며, 이제 제3장 가정문제의 해결방안(칼럼46-55)이 격주로 연재될 것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연재하고 있는 가정선교칼럼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상 '제3장 가정문제의 해결방안'입니다. '제1장 가정'이 서론이라면 '제2장 가정선교'는 본론이고, '제3장 가정문제의 해결방안'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선교칼럼에서 '가정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고 결단 화려하고 속은 텅 빈 모델하우스와 같을 것입니다.

가정은 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단위입니다. 가정의 갈등과 문제로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와 교회와 국가도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 같이 가정은 가족의 행복과 휴식(쉼)의 터전이고, 가장 소중한 선교지이고, 국가의 국력을 배양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정의 소중함에 관심을 갖고 행복하게 살기위해 노력해야 함을 잊고 가정은 의례히 저절로 되는

칼럼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4년에 "가정선교-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쿤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남가주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7번의 '가정선교세미나'를 3가지 주제(가정, 가정선교, 가정문제의 해결방안)로 강의를 나누어 가지면서 개강 전 2주 전에 미리 마지막 강의인 '가정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각자의 소견을 5분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준비

을 제시할 것입니다. 필자가 제시하는 대안이 모두 옳다고 할 수도 없고 완벽하다고는 더욱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필자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의 독자, 목회자, 가정사역자, 신학교 교수 등 가정선교 사역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더 좋은 해결방안, 대안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가정선교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가정문제의 해결방안” 항목을 시작하며 조언을 구함 가정구성원과 교회, 신학교 총체적 관심과 도움 필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가정선교는 가장 시급한 목회현장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정문제에 대하여 목회자가 속수무책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가정과 가정선교'에 대하여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정의 문제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학교에서 목회상담과 성경적 상담, 그리고 가정사역(Family Ministry)을 전공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으로서 가정사역자들과 교회가 이 같은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마음에 큰 충격과 절망을 받고, 2007년부터 크리스천헤럴드와 7년간, 그리고 미주 최대 기독교신문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가정선교

해 달라고 공지했지만 준비되지 않았고, 필자는 기발간된 "가정선교-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에서 5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준비한 발표자의 소견들은 이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가정선교에 대한 컨셉 자체도 정립되어있지 않고 도서관이나 신학교에서 책자, 논문 등에서도 이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선교세미나 집회광고를 보고 남가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가정사역자들과 신학교 교수들도 많이 참석했지만 가정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필자는 기발간된 저서에서 이미 제시한 5가지 해결방안 외에 최근 수년간 준비한 4가지의 대안을 더 준비하여 다음 주부터 연재되는 칼럼에서 9가지의 가정문제의 해결방안

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기도의 응답과 모든 문제, 특히 다양한 가정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는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찾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모든 문제는 세상의 윤리, 도덕, 철학, 심리학, 상담학 등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위계 질서와 가정의 구성원인 부부와 자녀들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 의무와 본분을 잘 지켜나갈 때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같이 협력해야 하며 교회와 신학교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6년 전통의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방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I-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5. 졸업생은 목사안수 받고 목회 또는 선교사로 사역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 wdc@midwest.edu
Dallas Site : dallas@midwest.edu
Irvine Site : glica@midwest.edu
Torrence Site : music@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조나단 에드워즈를 왜 연구하는가? (상)

에드워즈대학교 총장, 예일대 에드워즈센터 상임연구원 정부홍 박사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58)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 매사추세츠 필리머스에 1620년에 도착한 이후 약 80년이 지났을 무렵, 1703년에 코네티컷 하트포드에서 약 10마일 위에 위치한 이스터 윈즈에 태어나서, 영국으로부터 뉴잉글랜드(13개주로 된 신영국)가 1776

년에 독립하여 미국을 건국하기 약 20년 전까지 살았던 인물로서 예일대 교수, 노스앰튼교회 목사, 스타브릿지 인디언 선교사, 그리고 프린스턴대학 학장으로 살았던 인물이다. 사후에는 그를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대각성 설교자, 신학자, 철학자, 윤리학자, 그리고 심리학자였다고 평가한다.



정부홍 박사

에드워즈에 대한 찬사

에드워즈에 대한 찬사가 엄청 많은데 그 중 일부만 소개하자면 이렇다. 그의 책을 요약하고 개작하여 자기 사상에 맞추어 출간했던 감리교 창설자 존 웨슬리는 “심히 착하고 지혜로 우며 위대한 분이시다.”

또 웨슬리의 대학친구였으나 교리적으로 논적이었으며 1740년 10월에 뉴잉글랜드로 순례 설교하러 왔을 때 에드워즈의 초대말을 받아 교회에서 설교하며 에드워즈 집에 묵었던 조지 휘털드는 “그는 견고하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며, 뉴잉글랜드 전역에서 에드워즈와 같은 사람은 만나 보지 못했다.”

에드워즈 집에서 숙식을 하며 목회수련을 쌓았던 사무엘 흙킨스는 “현세 인간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겸손하고 가장 경건한 사람이다.”

프린스턴대학 4대 학장이요 에드워즈 자신의 후임 학장이었던 사무엘 데이비스는 동시대를 살면서 “미국이 배출한(America ever produced) 가장 심오한 사상가이며,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다.”

지난 20세기 중엽에 에드워즈 연구에 불을 질렀던 하버드대의 지성사 교수였던 페리 밀러도, “미국이 생산한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다.”

그리고 지난 세기의 가장 유명한 영국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는 “청교도들은 알프스 산에 비유하고 루터나 칼빈은 히말라야 산에 비유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야말로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하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했다.

요즘은 자유주의 물결로 인하여 다소 추중해졌으나 많은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고급영어과목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들”이란 설교문을 읽고 분석하거나 연극을 하기도 하며, 대학교에서는 미국 철학 및 윤리 그리고 역사 과목에서 많이 읽고 리포트 쓰는 것이 에드워즈란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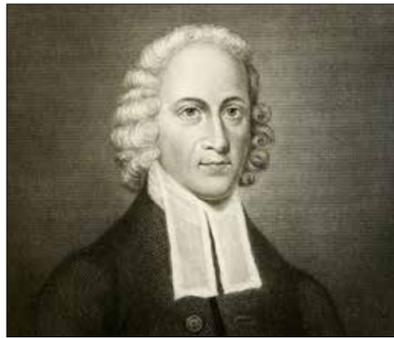
사실 필자는 이런 사실들과 평가들을 전혀 모른 채 1986년 대학 3년 때 필독서여서 읽게 되었는데, 바로 그 책이 에드워즈가 목회했던 하트포드에서 차로 1시간가량 쭉 올라가면 나오는, 매사추세츠 주의 노스앰튼 마을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변화 받고 회개하는 사건을 기록한 “놀라운 회심이야기(Faithful Narrative of the Surprising Work of God, 정부홍 역, 기독교문서: 1997)”이라는 작은 책이었다. 이 책 서문에서 다음같이 저의 소회를 남겼다:

“나는 이 책을 10회 이상 읽었다. 이 책은 영적 대각성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내 뇌리에게서, 아니 내 영혼에서 지울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되게 했다. 본서에 소개된 회심 장면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 몸에서 전율이 흐르고 떨려 한 여름에도 추위를 탈 정도이다. 그리고 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고 내 자신은 과연 구원에 이르는 회심을 하였는가 자문해 볼 수 있었다.”

조악하다. 이처럼 에드워즈에 대한 관심이 비단 신학자나 목회자들의 관심 대상만이 아니었다.

가정의 내력

에드워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좀 더 그 가정의 내력을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의 증조부 윌리엄 에드워즈는 런던에서 교구 목사였으나 전염병에 걸려 그의 아내와 아들 윌리엄을 남겨두고 죽은 다음 그 아내는 나무술꾼이나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자기 다른 자매를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 교수형을 당할 정도였다. 결국 그 부인과 이혼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몇 년 후 다시 신청하여 허락받고 나중에 재혼하였다.

어떻게 청교도 사회에서 이렇게 극악무도한 여자와 그런 사건이 있었으며, 더구나 그렇게 위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위대한 아버지 디모데가 태어나 성장하였는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그 비밀은 리처드 에드워즈의 장례식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조사를 아들 디모데가 읽었는데 그 속에서 부자간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제 아버지는 크지도 작지도 않

그는 학문적인 두뇌에 있어서만 천재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교적 측면에 있어서도 영적 신동으로 성장하며 체험한 것이 그의 위대한 삶의 바탕이 되었다.

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300년간 뉴잉글랜드를 넘어 현재는 아시아인들에게까지 그가 남긴 글들이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로 한국에서는 1984년에 처음으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윤기향 역)”과 “사랑과 그 열매”가 번역 소개되었고, 저도 본격적으로 에드워즈를 소개하고자 1996년에 한글 최초의 전기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를 내어 20여년전 에드워즈 관련서적이 전무할 때 많은 이들이 참고로 하고 신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지금에 보면 서둘러 낸 것이라

용기를 만드는 기술자(cooper)랑 재혼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1640년경 코네티컷 주 하트포드 드로 이권을 온다.

그 아들은 결혼하여 리처드를 낳았는데 장성하여 역시 쿠파이면서 장사를 하여 유력한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결혼을 하였는데 그 부인은 3개월 만에 바람을 피워 임신을 하고 아기는 그 친정에서 데려가 키웠으며, 그런 부정을 계속하고 감정이 폭발하여 어느 날 밤엔 남편을 칼로 죽이려 하기까지 하는 여자였다. 그뿐 아니라 그녀의 한 자매는 자기 아이를 살해 하였으며 또 한 형제는 도끼로

은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나 사랑하며, 동정심이 많으셨습니다. ...칭찬을 잘하시며 진실을 말씀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다친 사람이나 억울한 사람의 편에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타운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 어머니에게 아주 부드럽게 대하시며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선한 아버지였을 뿐 아니라 집안의 하인들에게 그렇게 하여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 낯선 사람들

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기억합니다. 이제 작별하는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신앙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대강령을 충분히 분명하게 믿고 이해해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믿고 선택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삼위일체 교리와 성자의 성육신 교리와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를 믿으셨습니 다...”

극악무도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디모데 에드워즈가 자애와 경건이 있는 아버지 사이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버지 디모데가 나왔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버지 디모데가 그 당시에 하버드대학에서 아주 우수한 졸업생이 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가까이 있는 이스터 윈즈 마을의 초대목사로 부임하여 그곳에서 63년간 목회하고 소천했다. 그의 어머니도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로서, 당시 ‘코네티컷 계곡의 교황’이라 불릴 정도의 영향력을 지닌 솔로몬 스타다드 목사의 딸이었다.

따라서 에드워즈의 친가와 외가 모두 훌륭한 청교도 목회자 가정에서 교육받고 성장했다. 에드워즈는 11남매 가운데서 5번째로 그리고 독자로 태어나, 13세에 예일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아버지 디모데에게 학습을 받았는데, 그 당시

회경험을 쌓은 후 아버지 디모데의 조언을 따라 21-23세(1724-1726)에 예일대의 교수로 초빙을 받고 뉴헤이븐으로 갔다. 거기에는 예일대 도서관이 있어 비치된 책들을 읽고 자기 관심분야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다. 특히 아이작 뉴턴과 존 로크의 과학 철학 신학 서적들을 두루 섭렵하여 이미 천재적인 소질을 나타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좋은 환경의 가정과 부모를 잘 만나고 또 어떤 천재성을 자신이 발휘하고, 그리고 명문학교를 거쳐 그런 특성이 개발되고 자기 전문분야에서 특출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위인들의 전형적인 전철일 것이다. 물론 에드워즈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철을 밟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필자가 보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를 다른 위인들 중의 위인으로 만든 한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바로 그것은 어릴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기 영혼에 대해 걱정하며 부흥과 회심을 경험하며 어떤 실천들을 했다는 것이다.

훗날 자기 고백록(Personal Narrative)에 기록하기를, “나의 소년 시절, 대학에 가기 몇 년 전에 내 아버지의 회중들 사이에 큰 각성이 일어났는데 그때 나도 수개월 동안 감화를 받고 종교와 내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며 여러 가지 의무들을 행하였다. 하루에 5번씩 은밀한 기도를 하고, 다른 소년들과 함께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만나곤 하였다. 그녀는 가운데 종교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종류의 기쁨을 경험하였다. ...나는 친구들과 아주 멀리 떨어진 은밀한 숲속에 움막을 지었다. 그외 나만의 특별한 은밀한 장소들을 두고서 홀로 자주 은거하며 마음은 감화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영적 회심과 새로운 감각과 지식을 갖는 첫출발이었으며 이후에도 대학 가서도 계속 되었으며 졸업한 이듬해에 고향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대화의 시간을 나누는 1721년 여름에 완전한 회심을 경험하였노라고 고백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는 학문적인 두뇌에 있어서만 천재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교적 측면에 있어서도 영적 신동으로 성장하며 체험한 것이, 그의 위대한 삶의 바탕이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PeterBHjung@gmail.com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22년 6월 30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 (1) 구약주해: 신명기 6 : 1 - 9
- (2) 신약주해: 고린도후서 5 : 11 - 21
- (3) 논문제목: 펜데믹시대 개혁주의 예배를 중심으로 한 목회전략
- (4) 설교본문: 구약 - 시편 95 : 1 - 8, 신약 - 로마서 12 : 1 - 2 (중 택일)
-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손기성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2년 3월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c) 합격자 발표는 46회 총회기간(5월10일 - 13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2년 5월 3일(화) - 4일(수)
장소: 다민족교회 (부흥회장 홍규표 목사 사무)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International Church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제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2년 6월30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b) 신학교전과경 성적증명서 1부
-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 f) 명함판 사진 2장
- g) 고시료: \$100(USD) Pay to the order : WGPC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손기성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3-4일)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당할 수 있음.
 - (3)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주소 : 4008 Lake Glen Rd. Fairfax, VA 22033 U.S.A.
전화 : 703-725-6468 / 이메일 663927@gmail.com

기타문의

- a) 고시부 부장 : 송일용 목사 (Rev. John Y. Song) kappcator@gmail.com
- b) 고시부 서기 :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663927@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 오세훈 목사
서기 : 장성철 목사
고시부부장 : 송일용 목사
고시부서기 : 손기성 목사